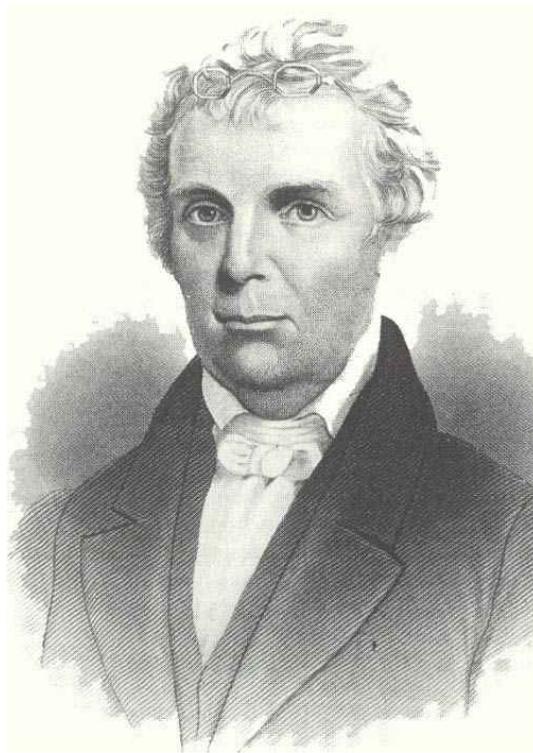


Barton W. Stone

발롱스톤

번역 및 해설 : 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Barton Warren Stone

Trans. by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0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버리말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 1772-1844)의 가장 큰 공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es) 운동을 펼친 일이다. 그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호칭을 처음부터 채택하여 끝까지 고수하였고, 알렉산더 캠벨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쓰기를 선호한 '제자들'(Disciples)이란 호칭에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던 캠벨과의 개혁가들과 스톤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란 명칭아래서 대연합을 이루었다. 이 대연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공헌이 컸던 인물이 발톤 스톤이었다. 스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아래서 지속적으로 캠벨과의 개혁가들과 연합을 시도한 반면, 알렉산더 캠벨은 오히려 이 일에 소극적이었다. 캠벨은 그 성향이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보수적이었고 학구파여서 스톤-캠벨운동의 두 축이었던 진리와 연합(혹은 일치) 가운데 진리 추구의 성향이 더 강하였다. 이 진리 추구의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 '신약성서교회'(New Testament Church) 운동이다. 오늘날에 이 운동의 성향이 가장 뚜렷한 곳이 예배 중에서 무악기를 선호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다. 좀 더 최근에는 그들도 스톤의 전천년설, 평화주의, 반정부주의 자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알렉산더 캠벨의 제자들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은 1930년대 이후 캠벨의 진리 추구 성향보다는 스톤의 연합 추구 성향을 대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란 단수 호칭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다.

이처럼 발톤 스톤은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이란 이름 아래 마지막 순간까지 만 40년간 연합운동을 쉬지 않았던 개척자였다. 이런 공적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캠벨에 비해서 연구가 미진하고 캠벨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강해서 스톤에 관한 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가 20여 년 전에 번역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최근에 번역을 완료한 “발톤 W. 스톤”[Stone, Barton Warren (1772-1844)]이란 제목의 논문을 약간의 화보와 함께 묶어서 단행본으로 역었다. 이 논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브라이트 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인 D. 뉴엘 윌리엄스(D. Newell Williams)가 쓰고 『스톤-캠벨운동의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에 실린 장문의 글이다.

스톤에 관한 두 개의 글만을 단행본으로 묶는 이유는 이 두 개의 글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읽히고 사용될 수 있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이 인용한 후에 각주와 참고도서목록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 글의 일부분이 오른 이후로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이들로 부터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간단한 이 소책자가 발톤 스톤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2010년 7월 22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	3
-----------	---

제1장 발흥 위젠 스톤(1772-1844)/9

1. 서론/9	
1.1 성인 같은 성품	10
1.2 신학적 논객	11
1.3 부와 접대	12
2. 장로교 목사 되기/14	
2.1 가족 배경	14
2.2 교육	14
2.3 회심과 목회소명	16
2.4 삼위일체론에 대한 초기 난관들	20
2.5 연이은 신학적 난관들과 또 다른 소명을 찾으려한 결 심	23
2.6 설교자격증과 안수	25
3. 대부흥회/28	
3.1 남부 켄터키 주 부흥회 방문	28
3.2 믿음에 대한 새 빛	29
3.3 북부 켄터키 주 부흥회 진작과 엘리자베스 캠벨	

6 / 발동 스톤

(Elizabeth Campbell)과의 결혼	31
3.4 켄터키 주 노회와의 결별	32
4. 그리스도인의 교회/35	
4.1 유언서와 그리스도인 이름	35
4.2 대속에 대한 새 빛	38
4.3 이전 동료들과의 결별과 신자들의 침수세례를 채택 41	
4.4 『제언』(<i>An Address</i>) 출판, 셸리아 보웬(Celia Bowen) 과 재혼, 테네시 주로 이주	43
4.5 켄터키 주로 귀환	44
4.6 삼위일체론과 대속론에 관한 논쟁을 일신	46
5. 알렉산더 캠벨의 추종자들과 연대/48	
6. 교회와 사회/57	
6.1 노예제도에 대한 초기 반대	57
6.2 해방 흑인들의 이주 지원 및 일리노이 주로 이사 ·59	
6.3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지원	61
6.4 노예, 그리스도인 연합, 전 천년설	62
6.5 반정부입장 채택 및 평화주의	63
7. 스톤-캠벨운동과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후기 성찰/65	
8. 죽음과 장사/69	
9. 스톤-캠벨 운동에 관한 스톤의 영향/69	
참고목록/70	

제2장 스트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71

본문	71
증인들의 해명서(The Witnesses' Address)	74
해설	76
참고서적	84

제3장 캐인 리지 성지/87

1. 캐인 리지 교회(Cane Ridge Meeting House)	87
2. 캐인 리지 예배당 보존 건물	88
3. 발톤 스톤 기념박물관	88
4. 캐인 리지 예배당 내부	89
5. 캐인 리지의 영적 각성 운동	90
6. 캐인 리지의 발톤 스톤의 기념비들	90
7. 발톤 스톤의 켄터키 주 조지타운의 집	92

제1장 발흥 위켄 스톤(1772-1844)

출저: D. Newell Williams,¹⁾ "Stone, Barton Warren (1772-1844),"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번역: 조동호 목사

서부²⁾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의 지도자. 1832년 스톤은 서부에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을 인도하여 개혁가들(Reformers)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알려진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추종자들과 연합하여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을 일으켰다.

1. 서론

1803년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서부지역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는 1832년까지 성도의 수가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오하이오 주, 인디애나 주에 걸쳐 16,000명 이상이 되었다.³⁾ 더 젊고 더 성공적인 알렉산더 캠벨

1) 역자 주: D. Newell Williams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

2) 역자 주: 서부(the West)라 함은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오하이오 강(Ohio River)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를 말함.

3) 역자 주: 1800년 통계에 따르면, 켄터키 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10,000명에 불과하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변방의

의 지도력은 1832년 연합으로 출범한 그 운동에서의 스톤의 리더십을 잠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당연한 개혁가였고, 스톤-캠벨운동에서의 영향력은 불변하였다.

1.1 성인 같은 성품

존 로저스(John Rogers)는 1847년 자신의 '부록과 회상'을 추가하여 스톤의 자서전을 출판하였는데, 그 이후로 스톤은 그의 성인 같은 성품으로 인해서 그 운동권 내에서 명성을 얻었다. 로저스는 이 테마를 여러 가지 표제로써 발전시켰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의 표제아래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약전(略傳)의 저자는 상당히 존경받는 스톤가(家)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가 그의 가족들 누구에게도 거칠거나 불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하였고, 25년간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화를 내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로저스는 스톤이 그의 그리스도인 정신 때문에 심지어 그의 종교적인 적대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의 훌륭한 도덕적 성품은 모두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리만 비처(Lyman Beecher)의 이단 심리에 대한 공표된 해설에서 장로교회의 조슈아 윌슨(Joshua L. Wilson)이 스톤의 훌륭한 도덕적 성품에 관해 언급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1843년 여성 그룹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를 보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교인들이었고, 수년 동안 스톤과 알고 지냈던 이들로서 그들이 스톤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가를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스톤과 잘 알고 지냈지만, 그의 견해들을 반대했던 한 장로교 노파는 불쑥 끼어들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스톤 씨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 나는 당신들 누구 못지않게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다. 그는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톤의 견해들

주들에서 16,000명 이상의 성도를 갖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 “스톤(B. W. Stone)은 그의 모든 설교와 저술로 말미암아 보다는 그의 훌륭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위해를 끼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넘버원이라 생각하고, 속임수에 빠지고, 그래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또 스톤의 겸손을 크게 칭송하였다. “비록 그가 성서를 깊이 연구한 훌륭한 학자였고, 그의 박식과 깊은 신앙심과 덕망 있는 태도의 결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자신의 장점을 알지 못하였고, 항상 물러나 있거나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같았다.” 로저스는 참된 위대함을 갈망할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서 스톤을 추천하였다.

스톤의 성품이 성인답다는 테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채택되었고, 스톤-캠벨운동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쉰다.

1.2 신학적 논쟁

로저스는 스톤의 또 다른 이미지, 즉 신학적 논쟁의 이미지를 되받아 치기 위해서 스톤의 성품이 성인답다는 것을 강조해왔을지 모른다. 스톤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전사(戰士)”였었다. 스톤은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신학적 논쟁들에 치중하였다. 그들 논쟁의 기원은 이성(理性)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험의 빛 아래서 성서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려는 그의 여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여망이 스톤으로 하여금 예정론을 거부하고, 삼위일체론과 구속론에 관한 ‘진보’적인 견해들을 수용하게 하였다. 비록 스톤이 그의 진보적이고 ‘이단적인’ 신학견해들을 열정적으로 이슈화시키려했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마다 기꺼이 그것들을 변호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가 출판한 전집(全集)의 상당 부분은 신학적 논쟁서들로 구성된다.

1824년 스톤이 캠벨을 만날 때까지, 그는 '아리우스' 기독교론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대한 '소치니파'(Socinian) 견해들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비록 스톤이 성서에 입각한 그의 견해들을 방어하면서 이들 비난들을 부인해 왔지만, 많은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인들은 그를 '서부지역 이단의 두령'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침례교인들과 그의 견해들을 읽거나 들었을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캠벨은, 스톤과 너무 가까이 지냄으로써 그와 동일시되어 침례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그들 두 단체들의 연합을 위한 스톤의 제의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초지일관하였고, 캠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이뤄졌다. 후에 캠벨은 1843년 장로교인 나단 라이스(Nathan L. Rice)와의 토론에서 그가 스톤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들의 이단성에서 '구출했노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운동권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1.3 부와 접매

베다니 소재 캠벨의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렉산더 캠벨이 돈 버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스톤의 저택이란 것은 아예 없었다. 비록 스톤은 캠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회심이전에는 부와 신분의 성공을 꾀하였노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혔지만, 그의 경제사(經濟史)는 대체적으로 내리막길이었다. 중상류층의 남부 가정에서 태어난 스톤은 그를 성장시켰을 소양교육을 받는데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허비하였다. 그의 몇몇 급우들도 그렇게 해서 법계와 정치계에 성공적으로 입문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회심 후에 장로교에서 목회의 길에 입문하였다. 후에 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두 노예가 포함된 유산을 물려받았다. 스톤은 "노예제도가 시민자유는 물론이고, 기독교원칙에도 불일치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시킨 후에 모두 해방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된 후에 그는 켄터키 노획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때, 그가 “나와 가족의 지원을 위한 풍성한 노예제도”라고 기술했던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 캠벨과는 달리 그는 그의 출판물에서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스톤의 줄어든 재산은 기독교 목사와 감독은 접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그의 확신과 상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접대를 실천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그의 집과 식탁에 환영을 받았고, 그의 집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주님의 친구들의 휴식장소”였다고 로저스는 소개한다. 비록 스톤이 설교가로서 그가 행한 노력의 대가로 받는 사례비가 작았고, 그가 원했던 만큼 그의 친구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투덜거리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로저스는 또한 적는다. 발톤과 셸리아(Celia) 스톤의 식탁은 스톤과 그의 부인이 원했던 만큼 항상 충분히 차릴 수가 없었고, 셸리아 스톤은 종종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곤 했다고 로저스는 말한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스톤은 그가 섬기려는 손님들에게 밝고 웃는 표정으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의 무엇으로 제가 손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묻곤 하였다. 주인으로서 스톤은 집이나 식탁에 채우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의 선량한 쾌활함과 개인적인 따뜻함으로 그 이상을 보충하였다고 로저스는 제안한다. 그가 수차례나 여행에 지쳐서 스톤의 집에 도착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로저스는 “그가, 그의 존경할만한 이마에 안경(spectacles)을 걸치고, 그의 움직임이 특징짓는 빠르고 품위 있는 발걸음으로, 그의 인정 많은 얼굴에 만들어내는 만족스런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 길게 뻗은 그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올 때와 우리를 그의 집으로 영접하여 들일 때, 우리는 그를 상상 속에서 본다.”고 썼다.

그리고 로저스도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이 주

창을 외인과 친구에게 길게 뻗어 내미는 손을 가지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였다.

2. 장로교 복사 되기

2.1 가족 배경

1722년 12월 24일, 메릴랜드 주 찰스 군(郡)의 군청 소재지였던 포트 토바코(Port Tobacco) 근처에서 출생한 스톤은 메릴랜드 주의 상류층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공직(公職)과 상당한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한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의 증, 증, 증조 할아버지, 캡틴 윌리엄 스톤(Captain William Stone, 1603-1695)은 메릴랜드 주의 첫 개신교인 주지사였다. 그의 둘째 사촌 토마스 스톤은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였고, 찰스 군(郡)에서 가장 큰 부동산들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였다. 발톤 스톤의 아버지 존 스톤(John Stone)은 1775년에 사망하였고, 토지와 16명의 노예들을 소유하였으며, 자신을 중상류층으로 분류하였다.

1779년 스톤의 어머니 메리 워렌 스톤은 네 자녀와 적어도 12명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계를 따라 버지니아 주 서쪽에 위치한 피츠실베니아(Pittsylvania) 군(郡)으로 이사하였다. 메리 스톤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발톤 스톤은 이 때 만 여섯 살이었다. 스톤의 아버지는 그의 토지를 이미 혼인한 나이든 두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증여하였으나 남편 사망 후에 메리는 합법적으로 포트 토바코에 있는 부동산의 삼분의 일을 소유하였다. 메리 스톤이 이사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남부 농장주들의 많은 수가 18세기 후반 들어 경제사정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서쪽으로 이주하였다.

2.2 교육

스톤은 그의 가족이 버지니아 주에 정착 후에 학교에 보내졌다. 1843년에 작성한 그의 자서전에서 스톤은 그의 첫 교사가 “폭군”이었으며, “모든 사소한 잘못에도 학생들을 매질하고 학대하였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고 전하였다. 스톤은 그 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며칠 후에 그는 “다른 기질”의 교사에게 보내졌다. 상류층에서는 “의지를 꺾는” 자녀양육철학에 동의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온화”하거나(moderate) “우아한”(genteel) 방법을 주창하였다. 온화한 방법은 아이의 의지를 꺾으려 했고, 우아한 철학은 아이의 뜻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락하였다. 성인으로서 스톤은 온화한 접근을 주창하였고, 교사들이 가끔씩은 회초리를 사용하도록 권하였으며, 만약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학과들을 배우지 못하는 일이 좀처럼 없을 것이다”는 점을 충고하였다. 스톤의 두 번째 교사는 로버트 소멀헤이즈(Robert W. Somerhays)였다. 스톤은 그를 “영국인”으로 확인하였다. 스톤은 소멀헤이즈의 지도로 쉽게 배웠고, 읽기, 쓰기, 산수를 4-5년 공부한 후에 소멀헤이즈는 그를 “더할 나위 없는 학자”(a finished scholar)로 선언하였다고 기억하였다.

스톤은 그가 “15-16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는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이 할당된 후에 그의 “마음은 그것을 볼릴 방법을 찾느라 밤낮으로 빠져들었다”고 회상하였다. 드디어 그는 자기 유산을 그가 범조계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소양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같은 교육에는 과학 과목들, 고대 언어 과목들, 철학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1790년 1월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길포드(Guilford) 군에 소재한 데이비드 콜드웰(David Caldwell) 아카데미에 입학하였다. 아카데미의 유일한 교사 콜드웰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펄로(Buffalo)와 앨라

만스(Alamance)에 소재한 장로교회들을 담임한 65세 된 목사였다. 교육과 목회를 결합한 기존의 장로교회의 방식을 따라서 콜드웰은 자신의 집에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스톤은 콜드웰 아카데미에서 3년간 공부하였고, 1793년에 그의 소양교육을 마쳤다.

2.3 핵심과 목회소명

스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을 때, 학생들 사이에 “대단한 신앙의 흥분”이 있었다. 아마도 50명이 넘지 않았을 등록된 학생들 가운데 30명쯤 되는 수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목회 아래서 최근 “신앙을 받아들였다.” 맥그레디는 콜드웰로부터 문법학교 교육을 받았고, 1789년 봄 길포드 군(郡)에 목사로 임직하기 전에 장로교의 설교가들인 존 맥밀란(John McMillan)과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와 함께 서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공부하였다.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깨우침”이 스톤의 기독교에로의 첫 노출은 아니었다. 스톤은 영국교회(성공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으로 이사한 후에도 스톤의 가족은 영국교회(once-established church)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스톤은 또 독립전쟁 후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에 복음을 전한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의 설교에도 노출되었다.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신앙의 흥분에 대한 스톤의 첫 반응은 그것을 무시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스톤은 그의 학업에서 신앙부흥운동을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보았다. 길포드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들어간 주요 비용은 가까운 민박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콜드웰 아카데미에서의 신앙의 흥분을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그는 초신자들이 수업시간(recitation) 전에 매일 아침 개인 방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적지 아니 놀랐다.” 게다가 스톤은 초신자들의 “매일의 신앙생활”(daily walk)을 주시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한 경건과 행복”을 보았다. 그 결과 스톤은 그의 룸메이트의 초청을 받아들여 맥그레디가 인도하는 설교집회에 참가하였다. 맥그레디의 설교는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맥그레디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은 육체의 쾌락에서나 부와 명예의 소유를 통해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칭송할만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과 즐거움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었다. 스톤은 맥그레디의 설교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기억하였다. “만일 내가 서있었다면, 필경 나는 감명을 받아 마룻바닥에 가라앉았을 것 같은 것이 나의 흥분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전하였다.

맥그레디의 설교 후에 스톤은 신앙을 추구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맥그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안(容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회심시킨다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안(容顔)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신 자의 영광이었다. 맥그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의 관찰은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단지 죄의 처벌뿐 아니라, 죄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같은 사랑과 그 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로써, 죄인은 죄의 처벌로부터의 용서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였다. 단지 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바람에서가 아닌 이 의지의 변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회심이었다.

스톤은 피츠실베이니아(Pittsylvania) 군(郡)에서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에게 노출된 뒤로 그의 죄 사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에 “길고 고통스런 투쟁”을 예상하였다. 회심추구의 고통은 구도자가

점증하는 죄의 권세를 깨닫는 것과 짝을 맞춰 구도자의 구원받 고자 하는 갈망에서 잉태된 고뇌와 탄식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침례 교인들, 감리 교인들, 장로 교인들은 모두가 회심받기 전 에 깨우친 죄인의 회심추구 즉 그들이 흔히 “고통”(distress)이 라고 말한 기간이 전형적으로 몇 주에서부터 일 년까지 지속된 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스톤은 딱 찬 일 년 동안 “구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거의 단념하기도 하면서 불 확실성의 파도에 들까불렸다”고 회상하였다. 결국 그는 콜드웰 이 섬기는 교회들의 하나인 앨라만스(Alamance)에 있는 한 집 회에 참석하였다. 어느 주일 저녁, 스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 한 설교자인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가 회중에게 설교하였 다. 스톤은 핫지의 본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였다는 것과, 핫지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동작과 많은 눈물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스톤은 “기술 된 그 사랑스런 성품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은 훈훈하였고, 내 마음은 그 교리에 빨려들었으며, 내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었다.”고 할 만큼 깊은 영향을 받았다. 장로 교인들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훈훈해진” 것을 발견하는 것 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설교에서 무 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회심의 표지(signs) 즉 하나 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였다. 스톤은 그가 회심 받았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고, 또 동시에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 니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억누르려하고 있었다고 전하였다.

핫지의 설교를 들은 후, 스톤은 성경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 다. “여기서 나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였다.”고 나중에 적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와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 원하려고 오셨다”에 대한 본문들에 대한 스톤의 전거(典據)로부 터 판단하자면, 핫지가 “상한 심령”이나 “가망 없는” 죄인을 그

리스도께 나오도록 초청함으로써 설교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난다. 핫지의 설교들은 결코 출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맥그레디의 설교들은 성서의 바로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파멸했고 망쳤다”고 느낀 죄인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이 호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없다고 느끼지만, 지금은 가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죄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스톤은 성서를 읽고 있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스톤은 그가 듣기만 했던 메시지에 대한 그의 마음의 반응에서 그가 그의 답을 찾았다는 것을 전하였다. “내가 듣기만 했던 진리, 곧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지배하였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발적인 주제에 그의 발 앞에 굴복하였고 가라앉았다.”

회심 후에 범조계에서 활동하려던 스톤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콜드웰에게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알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고 전하였다. 스톤은 침례교와 감리교 설교자들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장로교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콜드웰은 스톤이 설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에게 확신시킬 기적을 기대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켰다. 오히려 콜드웰은 만약 “스톤이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망이 있다면, 또 만약 그의 “선배 목회자들이”(fathers in the ministry) 그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가 주저 말고 안수를 받도록 힘써야 된다고 충고하였다.

2.4 삼위일체론에 대한 초기 난관들

1793년 봄 20살이 된 콜드웰 아카데미 졸업생은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 소속 목회후보자가 되었다. 목회후보자들을 받고 교육하고 시험하는 것은 장로회의 책임이었다. 장로회는 스톤과 다른 후보자들에게 “심사의 과정으로써” 신학분야에서 독특한 주제들을 연구하도록 배정하였다. 그들은 가을 장로회 모임에서 그 주제들에 관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스톤과 이전 급우인 사무엘 홈즈(Samuel Holmes)에게 주어진 주제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17세기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비트시우스(Herman Witsius)의 책이 할당되었다. “단지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한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persons),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는 태어나신 적이 없고(unbegotten), 아들은 영원히 태어나셨으며(begotten),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발출(發出)하신다(proceeding)는 것, 하나님 한분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 그러면서도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비트시우스는 먼저 입증했을 것이다.”고 스톤은 회상하였다. 이전에 스톤은 우상숭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혹은 그것들에 따라서 동등한 예배에 대한 걱정 없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기도를 드렸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트시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의 노력의 결과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가 회심이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곧 줄어들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은밀한 기도와 묵상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나의 하나님과 구세주께 다가가는 것은 지상에서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천상의 의식(儀式)은 저지되었다. 그리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나의 고통스런 마음에 찼다.”고 스톤은 기록하였다. 홈즈가 비트시우스에 비슷한 영향을 받

있다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비밀스런 어둠”에 말려들게 하고, 그들 헌신의 “열정을 식게”하려고 “의도되었다”고 믿으면서 스톤과 흠즈는 “그 책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초기 미주 공화국의 다른 시민들처럼, 스톤은 영국 계몽주의의 넓은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는 우리의 명확하고 독특한 개념들과 “일치하지 않는” 곧 “이성에 상반된” 명제들을 확인하였다. 스톤에게는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러져야 한다는 비트시우스의 가르침에 내포된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명확하고 독특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비트시우스는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은 한분뿐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동등한 예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러져야 한다는 가르침에 내포된 하나님은 한분보다 더 많다는 개념을 반대하였다. 비트시우스가 성서이외의 것을 읽었던 최초의 신학서적이었다는 것을 주목한 스톤은 긴장 속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명제들을 유지함으로써 기독교 진리를 밝히는 신학하기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스톤에게는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의 논술이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톤과 흠즈가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의 논술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일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장로 교인들은 아니었다. 헨리 파틸로(Henry Patillo)는 오렌지 장로회의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교리에 대한 아이작 와츠(Isaac Watts)의 대안적 논술을 선호하였고 상당히 퍼뜨렸다. 비록 지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같은 찬송들로 우선 기억되지만, 아이작 와츠(1674-1748)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철학자와 신학자로 또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와츠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삼위일체론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삼위일체에 관한 성서의 교리가 이성에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확실히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든지, 세 인격이 한 인격이라”는 교리는 이성에 상반되었다. 그러나 와츠에 의하면, 성서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성서는 “동일한 참된 신성(Godhead, 神性)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속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persons)이라고 무리 없이 불려도 좋을, 세 독특한 대리인들(agents)이거나 행동의 원칙들(principles)이다.” 따라서 와츠에 의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제에 상반되지 않는다. 와츠에 따르면, 잘못된 계시된 교리의 “견해들”과 인위적인 해설들을 교리 그 자체와 혼동하는 것이다. “평이한 성서교리 그 자체와 그것의 독특한 해설 사이를 잘 구분하는” 신학자는 “몇 가지 해설의 인위적인 형태들이 공격을 받고 아마도 폐기되는 동안, 신성한 교리의 믿음을 확고히 동요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와츠는 약속하였다.

삼위일체론해설의 인위적인 형태들에 관해서, 그 교리의 대부분 해설들의 최우선적인 문제들은 신성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와츠는 주장하였다. 와츠에 따르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든가 세 인격이 한 인격이란 개념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이었다. 이 문제는 신성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human soul)으로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영혼으로서, 성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그는 제시하였다. 이 인간의 영혼은 그의 인간의 몸(human body)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신의 본질과 연합”되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이 한 신성에 속하는 독특한 대리인 혹은 행동의 원칙이라는 명제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 명제의 진실이나 개연성은 이성에서 기인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은 한분 하나님께 통합된 독특한 대리인이란 명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개념에 상반되지 않는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들에게 마땅히 바쳐야할 적절한 예배문제에 관해서 와츠는 적절한 믿음과 실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서가 계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와츠에게 있어서 삼위일체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즉 “그들의 신성(神性)내지는 신의 본성 속의 교제”가 성서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한 예배와 영예”를 바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거룩한 세 인격들 개개인에게 동일한 형식의 식사(武辭)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이 “성서가 그들에게 할당한 특별직위와 특성”에 맞게 삼위일체의 여러 인격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식사(武辭)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톤과 흠즈는 삼위일체에 관한 와츠의 “논문” 사본을 구했고, 와츠의 견해들을 채용하였다. 헨리 파틸로는 오렌지 장로회의 1793년 가을 모임에서 목회후보생들의 신학 시험을 관장하였다. “파틸로가 삼위일체론의 주제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작았고, 그 이론에 대한 그의 질문들은 유별나지 않았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스톤은 흠즈와 자신의 답변들이 “정직했고 만족할만했다”고 기억하였다.

2.5 열이은 신학적 낭관들과 또 다른 소명을 찾으려한 결심

오렌지 장로회의의 1794년 봄 집회 전, 스톤은 목사고시를 마치고 설교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었을 때, “상당히 우울” 해졌고, 설교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어떤 소명을 좇으려고 결심했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그의 우울의 주된 원인은 신학적인 것이었다. “내 마음은 사실로 받아드려야 할, 그렇지만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다른 것들과 만족스럽게 일치시킬 수 없는 많은

난해한 교리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웠다”고 그는 썼다. 스톤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한 교리들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과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에 관한 교리들이었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바와 같이 이들 교리들 모두는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라고 스톤이 본 것과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와 불일치한다는 암시들을 갖고 있다고 그에게 비친 또 다른 명제와 결합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의 교리에서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명제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의 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자신의 의지(will), 구애받지 않는 불변의 운명(ordain)의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결정(counsel)에 의해서 행하셨다”고 또한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의지”에서 성서에 명백히 가르친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그 교리는 특정 개인들이 저주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또한 진술하였다. 그러나 스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분이시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스톤이 비트시우스의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혼란을 겪었던 앞서와 마찬가지로 스톤의 지적인 혼란은 그의 기도생활(devotion)에 악영향을 미쳤다. “칼뱅주의 틀 속에서 매우 오랫동안 조직신학연구에 종사했고 제한받았기 때문에 나의 열정, 평안 그리고 영적인 삶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스톤은 적었다.

설교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어떤 소명을 좇으려고 결심한 후에 스톤은 조지아 주 오글소르프(Oglethorpe) 군(郡)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 매튜 스톤(Matthew Stone)의 집으로 향하였다. 매튜와 또 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던 스톤의 사촌형제(half-brother) 토마스 스톤의 영향으로 스톤은 윌크즈(Wilkes)

군(郡)소재 워싱턴 가까운 곳에 최근 세워진 감리교 아카데미에서 언어 교수로 채용되었다. 1794년 봄에 스톤이 겪었던 우울함의 근원은 신학적 문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도 있었으므로 이 임직은 우연한 것이었다. 그의 기금은 고갈되었고, 그의 친척들 가운데 누구도 기꺼이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조지아 주에 머무는 동안 스톤은 존 스프링거(John Springer)의 설교 집회에 참석하였다. 스톤은 그를 “매우 열정적인 장로교인”으로 기술하였다. 델라웨어 주 월밍턴(Wilmington) 근교에서 태어난 스프링거(1744-1798)는 오렌지 장로회의 주도적인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홀(James Hall)의 지도아래서 신학을 공부했던 프린스턴의 졸업생이었다. 그가 출판한 저술들은 제임스 맥그레디의 것들과 스타일과 내용 면에서 눈에 띄게 유사하다. 스프링거의 설교를 통해서 스톤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매우 강렬한 소망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들 “감명”을 “거부하고 억누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평안은 망가졌다.” 장로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같은 경험이 하나님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증거였다.

2.6 설교자격증과 양수

1796년 봄에 조지아 주에서 일 년 반을 가르친 후에 23살의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돌아왔다. 1796년 4월 6일 그는 성공적으로 그의 남은 목사고시를 마쳤고, 오렌지 장로회로부터, 오렌지 장로회의의 범위 내에서 혹은 그가 “절차를 따라 초빙”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목회가 가능한 “목사보(牧師輔)”로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초기에 느낀 칼뱅주의 신학의 당혹스러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목회 초기에 선택과 유기와 예정에 관한 칼뱅주의 교리들을 “진리이지만 가늠할 수 없는 신비들”로 보았고, 그의 설교를 “신앙의 실천분야”에 “국한하였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데이비드 콜드웰(David Caldwell)의 충고에 관한 이 입장을 채택했는지 모른다. 콜드웰은 동일한 질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학생들 가운데 다른 한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의 과정을 충고하였다.

스톤은 부적절한 초기의 느낌들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의 일 년 반 동안을 목사보로서 버지니아 주의 서부, 테네시 주, 켄터키 주를 목회하기 위해서 순회하였다고 전하였다. 1797년 겨울에 그는 켄터키 주 북부에 소재한 케인 리지(Cane Ridge)와 콘코드(Concord) 지역의 장로교 회중들을 맡아 정착하였다. 자서전에서 스톤은 겨울이 찾아온 것 외에 케인 리지와 콘코드에 그가 정착하게 된 그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이 지역이 그에게 특별히 매력적이었는지 두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케인 리지와 콘코드 공동사회들의 거의 전체 인구의 종교적 배경이 장로교회였다. 이전에 영국교회에 다니다가 장로교회로 옮긴 자로서 스톤은 장로 교인들의 모임을 평가하였다. 둘째, 스톤이 그의 자서전에서 지적한 대로, 케인 리지와 콘코드 공동사회들은 “부유한” 농장주들로 구성되었다. 비록 스톤이, 다른 장로교회 목사들처럼, 부(富)가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식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는 배경과 교육에 의해서 변방 사회의 증상류 계층과 연결되어 있었다.

1798년 봄에 스톤은 트랜실베이니아(Transylvania) 장로회를 통해서 케인 리지와 콘코드의 연합 회중들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스톤은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798년 10월 4일이 그의 안수식 날짜로 정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서에 가르친 교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요구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신앙고백서의 조심스런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이 내게는 거의 슬픔의 시작이었다. 나는 신앙고백서에 가르친 삼위일체론에 망설였다. 나는 그것을 믿어보려고 힘썼다. 그러나 그것에 양심적으로 서명할 수가 없었다.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친 선택과 유기와 예정에 대한 교리

들에 관해서 의심들이 또한 내 마음에 일어났다.”

스톤의 안수식 날짜로 정해진 날 트랜실베이니아 장로회의 11명 위원들이 케인 리지에 모였다. 스톤이 시험을 치르고 안수를 받게 될 장로회의 회의 전에 그는 장로회의 두 위원들인 제임스 블리스(James Blythe)와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을 사적으로 만나 그들에게 그의 난제들을 고지(告知)하였고, 그가 그 때 안수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블리스와 마샬은 스톤의 “난제들과 이의들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스톤이 블리스와 마샬에게 드러낸 난제들의 크기는 후에 일부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1822년에 쓴 한 편지에서 제임스 블리스는 스톤이 그 때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특정 교리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의들을 제기하였으나 신앙고백서의 주된 교리들의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블리스의 편지에 대한 응답에서 스톤은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란 말에 반대하였다는 것과 삼위일체론에서 세 “인격들”(persons)이 세 “지적인 존재들”(intelligent beings) 혹은 세 “호칭들이나 관계들”(appellations or relations)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그는 선택과 유기와 예정 교리들에 관한 그의 “의심들”을 블리스와 마샬과 나누지 않았다. 1729년 장로교 총회(synod)가 승인한 수용 조례(Adopting Act)에 따르면, 만약 장로회의 관점에서 신앙고백서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들이 단지 “비본질”에 관한 것이면, 신앙고백서에 오로지 부분적으로 서명할 목사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이 허용될만한 것이었다. 블리스와 마샬은 “얼마만큼까지”(how far) 신앙고백서를 기꺼이 수용할 것인지를 스톤에게 물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신앙고백서를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부분서명이 충분한 자격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스톤은 트랜실베이니아 장로회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다.

3. 개부흥회

3.1 남부 켄터키 주 부흥회 방문

한편 켄터키 주 남부에서는 스톤의 신학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부흥회가 제임스 맥그레디와 몇몇 스톤의 이전 콜드웰 아카데미의 급우들의 리더십아래서 시작되었다. 1796년 제임스 맥그레디는 켄터키 주 남부의 강들, 즉 레드(Red), 머디(Muddy), 가스퍼(Gasper)를 따라 이름 붙여진 세 개의 회중들을 돌보는 목사가 되었다. 1797년 봄까지 가스퍼 강가에 짧은 기간의 각성운동(awakening)이 있었다. 1798년 여름과 가을에 이들 세 회중들이 각성되어진 것 같았다. 몇몇 젊은이들이 일련의 “성찬 집회들”(sacramental meetings)을 통해서 체험한 회심을 고백하였다. 성찬 집회는 스코틀랜드의 성만찬 전통(Scots communion tradition)이었다. 이 전통은 18세기 미주 장로교회들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비록 집회는 한 회중에 의해서 개최되지만, 전형적으로 여러 회중들과 설교가들이 이들 집회들에 동참하였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목사들은 회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주일날 동참한 교인들은 주의 만찬예배를 가졌다. 높아진 종교적 관심의 패턴과 성찬 집회들에 관련되고 보고된 회심들은 1799년 여름동안 반복되었다. 그래서 1800년 여름기간에 서부 대 부흥회(1797-1805, the Great Revival in the West)로 알려진 것의 특징들, 즉 대단히 큰 규모의 군중들, 성찬 집회들을 위해서 땅바닥에 텐트를 치는 관행, “쓰러지는”⁴⁾ 사람들의 신체적 현상들이 처음 나타났다.

부흥회 소식을 접한 스톤은 1801년 이른 봄에 맥그레디와 다른 노스캐롤라이나 주 장로 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성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켄터키 주 남부로 여행하였다. 자서전에

4) 역사 주: 입신과 비슷한 현상.

서 스톤은 그가 처음 보았을 때의 쓰러짐의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사자들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때로는 잠깐 동안 소생하기, 깊은 신음, 혹은 공기를 가르며 비명, 혹은 격렬하게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의해서 삶의 증상들을 들어내 보이기를 여러 시간 연속적으로 계속하였다.” 점진적으로 그들은 깨어나곤 하였다. “그들의 안면을 덮고 있던 우울한 구름”이 처음에는 소망의 미소들에, 그리고 나서 기쁨의 미소들에 물러나곤 하였다. 중국에 그들은 “구원을 외치면서” 일어서곤 하였다. 그리고서는 둘러선 군중에게 “진실로 유창하고 감동적인 언어”로 설교하곤 하였다. “놀라서” 스톤은 “내가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복음의 영광스런 신비들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않았는가.”라고 외쳤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그들의 호소가 엄숙하고, 심장을 꿰뚫으며, 용감하고, 자유로운 것이었다고 그는 전하였다. 그들이 행한 설교에서 “전개된 복음진리에 관한 지식에” 그가 깜짝 놀랐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연사들이 막 전달받았던 동일한 상태로” 사람들이 쓰러지는가를 스톤은 관찰하였다.

3.2 믿음에 대한 새 빛

안수를 받은 다음 스톤은 선택, 유기, 예정에 관한 칼뱅주의 교리들과 계속해서 씨름하였다. 그들 교리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으나 버림받은(유기)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스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주시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가르침과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었다.

스톤이 1805년에 출판한 그의 신학적인 발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그는 그의 “모든” 난제들이 켄터키 주 남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찰하는 동안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수의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신앙을 고백하였고, 모두가 동일하고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나는 목소리를 알았고, 권세를 느꼈다”고 그는 썼다. 스톤이 안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가 느낀 그 “권세”는 복음의 권세였다. 그 복음은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권세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죄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이었다. “믿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혹은 기초였다. 그 믿음은 예수의 증거 혹은 복음이었다. 죄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총과 구원을 받을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혹은 도덕적 자발성을 주신 것과 죄인들은 도덕적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그 메시지를 믿을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받을 정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했다.

도덕적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지와 갈망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 속에는 장로 교인들이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새로운 특징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을만한 능력, 곧 그들에게 죄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게 할 성령의 사전(事前) 사역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할 힘이 있다는 것이 스톤의 주장이었다. 스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발전시켰고, 켄

터키 주 남부 집회에 참석하기 이전에 그것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죄인에게 죄의 권세를 깨닫게 할 성령의 사전(事前) 사역 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주신다는 개념이 집회 중에 쓰러지고⁵⁾ 있는 사람들과 시간의 문제일 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회심들이 이뤄지는 대 부흥 집회 중에서 더욱 강요되고 있었다. 스톤과 같은 사람이 겪었던 상당 기간의 “고뇌”는 동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전형적이었다.

3.3 북부 켄터키 주 부흥회 진작과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과의 결혼

스톤은 그가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그가 죄인에게 “지금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켄터키 주 북부로 돌아왔다. 머지않아 켄터키 주 북부 장로교인들 사이에 대부흥회의 뚜렷한 특징들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다. 6월 첫 주일 스톤은 콘코드(Concord)에서 성만찬을 집례 하였다. 그날의 모임은 켄터키 주 북부에서 열린 집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신앙집회였다. 유명한 인디언 전사(戰士)이자 예비군 수장(captain)이었던 로버트 패터슨 대령(Colonel Robert Patterson)은 모인 수를 4,000명으로 추정하였다. 26년 후에 쓰인 그 부흥회에 대한 설명에서 스톤은 장로 교인들은 물론이고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도 참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집회는 밤낮으로 5일간 계속되었고, 야외에서 이뤄졌다. 콘코드 집회소가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곱 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참석하였다. 적어도 한 명의 감리 교인이 설교하였다. 패터슨은 150명이 쓰러졌고, 250명이 성찬을 받들었다고 전하였다. 그는 또 12 가족들이 식량을 가져왔고, 땅바닥에서 야영하였다고 적었다. “쓰러짐”과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의 참석으로 특징지어진

5) 역자 주: 입신과 비슷한 현상.

잘 거행된 성찬들이 6월과 7월 내내 켄터키 북부에서 계속되었다.

한편, 8월 첫 주말에 캐인 리지(Cane Ridge)에서 성만찬식이 있을 것을 광고한 후 6월 마지막 주간동안 28세의 스톤은 켄터키 주 무렌버그(Muhlenberg) 군(郡) 그린빌(Greenville)로 여행을 떠났다. 그린빌은 엘리자베스 캠벨(Elizabeth Campbell)의 고향이었다. 스톤은 7월 2일 자신보다 11살 아래인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그와 엘리자베스는 캐인 리지에서 거행될 8월 성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 무렌버그를 떠났다고 스톤은 전하였다.

나중에 캐인 리지 집회 혹은 캐인 리지 부흥회로 알려진 캐인 리지의 성만찬집회는 1801년 8월 6일 금요일에 시작하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되었다. 수많은 마차들이 땅바닥에 야영하였고, 그 수가 적어도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125대에서 148대까지 다양하게 추정되었고, 한 목격자는 그 넓이가 네 개의 도시 블록에 맞먹는 것이었다고 전하였다. 게다가 승마장에 거주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이웃 마을들에서 민박한 사람들까지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낮 집회를 위해서 도착하였다. 땅바닥에 선 사람들의 수가 토요일과 주일 1만 명에서 2만 명 또는 그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참석자는 야영장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설교하는 목사가 모두 7명”이었다고 그 수를 헤아렸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루터기들과 마차들을 급한 대로 단상으로 활용하였다. 16명과 아마도 많게는 18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적어도 4명의 감리교 목사들이 또한 설교하였다. 신원불명의 한 흑인(아프리카인) 설교가는 침례 교인이었을 것이다. 성찬을 받든 자의 수가 800명에서 1,1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쓰러진 자들의 수는 300명에서 3,000명까지 추정되었다.

3.4 켄터키 주 노회와의 결별

믿음에 관한 스톤의 새로운 빛이 몇 명의 그의 장로교 동료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모든 장로 교인들이 지금 믿고 구원받으라는 죄인들을 향한 스톤의 초청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어떤 사전 사역도 없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가 리처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의 켄터키 주 캐빈 크릭(Cabin Creek) 회중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1801년 11월 3일 캐빈 크릭(Cabin Creek) 회중의 세 명의 장로들이 워싱턴 장로회(Washington Presbytery)에 맥네마르의 교리를 비난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1801년 11월 11일 오하이오 주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서 장로회가 모였을 때, 캐빈 크릭의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다루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맥네마르는 워싱턴 장로회를 통해서 오하이오 주 남부 터틀 크릭(Turtle Creek) 회중으로부터 청빙을 받아갔다.

후에 스톤은 장로교 성직자들 사이에서 “정통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스톤과 맥네마르와 다른 목사들이 설교한 교리들에 괴로워 몸부림쳤지만, 이들 교리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강력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견해들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썼다. 1802년 가을에 가서 장로교 목사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입장변화의 이유는, 스톤에 따르면, 감리 교인들과 침례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스톤은 침례 교인들이나 감리 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밝히지 않았지만, 성찬 집회에서 “신앙을 고백”했을 성실은 장로교 가정들에서 자란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다.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매인 자들”이 그것의 교리를 과감하게 설교함으로써 또 “그들을 방어하는데 가장 강력한 주장들을” 씀으로써 “제자들을 끌어가는데” 성공한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에 대응하였다고 전하였다. 여기에 대응하여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의 설교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교리들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고백적 투쟁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매인 자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개하였고, 우리의 진보를 저지하고 우리들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문제들이 1803년 9월 6일 렉싱턴에서 개최된 켄터키 주 총회(Synod of Kentucky) 때 부각되었다. 총회 시작 때부터 총회의 다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충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스톤과 맥네마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리를 나눈 세 명의 다른 목사들, 즉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존 톰프슨(John Thompson), 존 둔라비(John Dunlavy)의 목회사역을 정지 시키기로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9월 10일, 스톤과 맥네마르, 마샬, 톰프슨, 둔라비는 탈퇴하였고, “우리가 그의 결정권을 “양심상 인정할” 수 없는 재판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에 기소되기보다는 총회의 지배권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항의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화해시키려는 노력들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한편 마샬, 둔라비, 맥네마르, 스톤 그리고 톰프슨은 정식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결성하였다. 스프링필드란 이름을 택한 것은 워싱턴 장로회와 그들의 역사에서 오하이오 주 스프링필드와의 긍정적 관련 때문이었다. 1804년 1월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켄터키 주 총회의 지배권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변호, 그것에 복음에 대한 간결한 견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첨부되다』(An Apology for Renouncing the Jurisdiction of the Synod of Kentucky, To Which Is Added a Compendious View of the Gospel and a Few Remarks on the Confession of Faith)는 주제로 100쪽짜리 팸플릿을 출판하였다. 마샬은 팸플릿의 첫 부분인, “변호”를 썼고, 이어지는 두 부분들은 스톤과 톰프슨에 의해서 각각 쓰였다.

스톤의 “복음에 대한 간결한 견해”는 새 장로회의 신학적 성명이었다. 스톤은 인간의 완전타락, 중생, 복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였다. 반대자들은 죄인들이 복음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⁶⁾을 부인함으로써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그들이 부인한다고 고발하였다. 스톤은 이 고소에 대응하여 주장하기를,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믿음을 갖고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약간의 비밀과 신비스런 방법으로 진리를 보고 시인하기 위해서, 죄인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 전에, 조명되어지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말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마음을 조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인의 교회

4.1 유언서와 그리스도인 이름

1804년 6월 28일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회원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of Springfield Presbytery*)라 이름 붙인 한 문서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고 선포하였다. 해체하기 이전 회원들이 “증인들”로서 서명한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증인들의 제언”(The Witnesses' Address)이란 제목의 부록을 달았는데, 그들이 장로회를 해체하게 된 그들의 이유들을 진술하였다. 그들은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들과 당파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들은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배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극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

6) 역자 주: 성령의 조명론과 내적증거론.

다. 또 그들은 한 장로회로써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이란 제목의 제언을 공표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치리의 단순성의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창안들과 군주적인 전통들의 제거”를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곧 바로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교회조직들(confederacies), 즉 당회(Church Sessions), 지방노회(Presbyteries), 주(州) 노회(Synods), 전국총회(General Assemblies)와 같은 사례나 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치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인위적인 조직의 이름과 승낙 아래서 벗어나기 버렸을 것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당파의 존재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죽어 가는 죄인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들은 “신선한 마음의 관점에서 멀어지는 소음과 격분의 당파싸움에서 후퇴하여 해체하여 죽기로 기꺼이 합의”하였다.

그들의 장로회 해체에 대한 그 장로회의 이유들 배후에는 천년왕국 즉 계시록 20장 1-6절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멀지 않다는 강한 증거가 부흥이라는 그들의 확신 때문이었다. 천년왕국의 도래와 기독교의 성장과 증가된 영향력의 연관성은 영국 청교도주의를 통해서 16세기까지 거슬러 추적될 수 있다. 18세기에 요나단 에드워즈는 세계복음화와 사회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스런 역사(役事)”인 천년왕국을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그가 가르쳤다.⁸⁾ 교회에서의 분열과 “당파주의”는 천년왕국의 도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써 폭넓게 인식되었다.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포함된 다음의 조항(item)은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

7) 역자 주: 신약성서의 가르침으로부터.

8) 역자 주: 이런 주장을 일컬어 후천년설이라 부른다.

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증인들의 제언”(The Witnesses' Address)의 결론에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연합함으로 종결될 우리의 서부 지역(Western country)⁹⁾에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런 사역 속에 그분의 선하심의 펼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연합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장로회를 해체함에 있어서 서명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役事)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천년왕국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서명자들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려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증인들의 제언”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썼다. 장로회로써는 죽고, “죽을 운명인 틀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고 또 말한다. 그들은 유빌레(jubilee)의 나팔을 불며, 강한 자들(the mighty)에 대항하여 주님의 도움에 자진해서 헌신한다.” 게다가 그들은 1804년 10월 14일 이에 공감하는 자들을 위해 주말에 벤엘교회에서 열린 대중 집회 때 광고함과 동시에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를 소책자로 출판하였다. 그들은 렉싱턴에서 북서방향으로 1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벤엘이 켄터키 주,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에서 모이기에 적합한 중심지란 점을 주목하였다. 서명자들은 그들의 목회자의 특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그들 자신의 권위의 힘으로 교회를 위해 “입법할” 그들의 권세와 장로 교회의 *치리형식*에 의해서 명백히 금지된 권세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들” 혹은 목회자들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기보다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

9) 역자 주: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오하이오 강(Ohio River)을 따라 형성된 변방 개척지를 말함.

고, 목사후보생들을 심사하며, 목사안수를 도울 권리를 존치시켰다.

스톤은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에 서명하는 것에 추가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이 1804년 6월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로 최초로 주어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취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써 2개월 전 마샬의 벵엘 교회(Marshall's Bethel Church)에서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가 전한 설교에서 장로회에 추천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취함에 있어서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 자신들이 최초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운동, 즉 그들이 믿기를 천년왕국을 안내해 들 일 운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4.2 계속에 대한 새 빛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이전 장로회의 확신의 영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연합을 위한 노력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자들을 오랫동안 당혹스럽게 했던 신학적 문제들이 천년왕국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804년 겨울 동안 스포링필드 장로회의 회원들은 켄터키 주노회의 회원들이 목청을 높여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받았다. 다른 19세기 개신교도들처럼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16세기의 개혁가들로부터 물려받은 구속(救贖)에 대한 “대속의” 교리를 설교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대속자로서 죽었다. 인류는 하나님이 아담과 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와 체결한 계약법을 어겼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를 미워하시고 범

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걱정했어야 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화목제물의 선택을 필요로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의로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 혹은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의 “보증인” 또는 대속자였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또 그분은 그들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며, 구약법아래서 동물제물들이 기대했던 것의 모형론적 성취였다.

켄터키 주노회의 회원들이 목청을 높여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던 주장은, 만약,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했던 인류의 한몫 또는 일부를 위한 것만이 아닌, 그가 율법의 요구들과 모든 죄인들을 위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면, 그러면 아무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란 것이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만인구원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생에서 개심을 했든 안했든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대부분의 장로 교인들과 침례 교인들과 감리 교인들처럼, 성서는 만인구원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래서 스톤은 그들이 대속에 관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prayerful attention)” 성서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스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보증인 또는 대속자로 언급된 말씀을 찾으려 함으로써 대속에 대한 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놀랍게도 단 한 구절의 성구에서도 그 개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에 그는 “보증인 그

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언급된 말씀을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율법과 공의가 "예수님의 대리적 순종과 고난"를 통해서 충족되었다고 언급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뒤졌다. 그러나 다시 그는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사셨으며, 죽으셨다고 언급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아버지를 선포하려는 - 진리를 입증하려는 - 약속들을 확증하려는 -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려는 -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 우리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려는 것이었음을 발견하였다. 1805년 겨울동안 스톤은 그 주제에 관해서 장로교 목사 매튜 휴스턴(Matthew Houston)에게 두 개의 서신들을 보냈고, 1805년 봄에 그 내용을 "대속: 친구에게 쓴 두 개의 서신 내용"(Atonement: The Substance of Two Letters Written to a Friend)이란 제목으로 36쪽 팸플릿을 출판하였다.

스톤의 팸플릿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의 가르침을 반대한 켄터키 주노회 회원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 반대로 그의 서신들의 발행은 기독교 믿음에 대한 그들의 교리와 근본진리들을 공격한 서신들로 검토한 그의 이전 장로교 동료들과의 문서논쟁에 불을 붙였다. 데이비드 라이스(David Rice)는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특히 장로 교인들로 불리거나 불리었던 자들인 켄터키 주민들에게 보내는 서신』(*An Epistle to the Citizens of Kentucky, Professing Christianity; Especially Those That Are or Have Been, Denominated Presbyterians*)에서 스톤의 서신들을 반박하였다. 존 캠벨(John P. Campbell)은 『탄핵, 대속이라 이름 붙여진 발통 스톤이 출판한 두 서신들에 관하여』(*Strictures, On Two Letters, Published by Barton W. Stone, Entitled Atonement*)로 스톤의 서신들에 반박하였다. 스톤은 라이스 서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를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스톤이 복음의 "아버지"로 간주한 라이스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톤은 『존 캠벨의

대속에 관한 탄핵에 대한 대답』(*A Reply to John P. Campbell's Strictures on Atonement*)이란 글로 캠벨에 대응하였다. 이에 캠벨은 스톤의 대답에 『방어자: 혹은 스톤의 대답에 반하여 입증된 탄핵 교리들』(*Vindex: Or The Doctrines of the Strictures Vindicated Against the Reply of Mr. Stone*)로 대응하였다.

4.3 이전 동료들과의 결별과 신자들의 침수세례를 채택

스톤이 “대속”(Atonement)을 출판한지 6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과 분열로 점철되었다. 캠벨(John P. Campbell)은 그의 『탄핵』(*Strictures*)에서 그가 북 캐럴라이나 주의 신학도로서 아이작 와츠(Isaac Watts)를 읽음으로써 배웠던 견해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스톤의 견해가 비정통적임을 내비쳤다. 스톤은 캠벨이 자신을 삼위일체론의 이단자로 비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내가 믿었던 교리를” 방어하도록 그에게 요구했던 대로이다. 스톤은 자기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결코 쓴 적이 없다고 하였고, 수년간 대중강연들에서 “그 주제에 관해서 침묵”했었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삼위일체론에 관한 스톤의 견해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폭넓게 수용되었다할지라도 그것들은 내부 불화의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1805년 봄에 그리스도인들은 동부에서 온 웨이커(Shaker)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전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창립멤버들이었던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와 존 둔라비(John Dunlavy) 두 사람은 웨이커 교도가 되었다. 스톤은 있는 힘껏 웨이커 교도들을 맞았다.¹⁰⁾

10) 역자 주: 웨이커 교도들은 엄격한 금욕생활을 요구하며,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단의 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똑같이 산출물을 받는 일종의 생활공동체(commune)이다. 이들은 1774년 미국에 도착했으며 1850년경 약 4,000명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구성원들이 줄어들었다.

2년 후 스톤을 포함해서 일부 그리스도인 설교가들은 침례를 믿는 자의 침수세례로 채택하였고 그 자신들도 침례를 받았다. 스톤은 믿는 자의 침수세례에 관하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회의에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아직 그들이 이 성례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섬기는 회중들이(교회들이) 이 성례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그들 목회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회중들(교회들)의 교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의 침수세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성서이외에 다른 어떤 유대와 형제 사랑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들은 우리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고 그것들을 순수하게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을 충고하기 시작하였다.”고 스톤은 적었다. “규정집”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회자들 사이에는 마샬(Marshall)과 톰프슨(Thompson)이 있었다. 스톤과 다른 사람들은 규정집을 지지하는데 사용된 논쟁들이 “모든 인간 과당의 신조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것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았다. 신조는 일찍이 세상에 부과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위해(危害)하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爲)하여 규정집들을 반대하였다.”고 스톤은 진술하였다. 1810년 8월 벨엘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회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인” 연합체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의 현재의 견해들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지만, 규정집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타협이 이뤄졌다. 스톤, 마샬, 톰프슨 그리고 다른 두 명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명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샬과 톰프슨과 다른 한 명의 목회자가 삼위일체와 대속에 관한 정통교리들을 확인하기를 원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견해들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1811년 3월 다블(Tabor) 산에서 열린 목회자 모임 회의가, 스톤의 지도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교리적

차이들이 친교를 갈라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 성명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 마샬과 톰프슨은 장로교 교단으로 회귀해버렸다. 그래서 1811년 봄까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다섯 창립멤버들 가운데 스톤만 홀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4.4 『제언』(An Address) 출판, 셀리아 보웬(Celia Bowen)과 재혼, 테네시 주로 이주

1814년 스톤은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오하이오 주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제언.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에 관하여』(An Address to the Christian Churches in Kentucky, Tennessee and Ohio. On Several Important Doctrines of Religion)를 발표하였다. 『제언』(An Address)에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 성령의 작용들 그리고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었다. 스톤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존 톰프슨(John Thompson)에 의해 “연결된” 교리 성명서를 쓰는데 실패한 작성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1811년에 쓴 응답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고 적었다. 스톤의 제언이 3년 뒤에 나온 것은 십중팔구 작성 위원회에 임명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의 개인적인 정황들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 때문이었다.

1810년 5월에 엘리자베스가 죽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그는 가사와 교인들 그리고 네 딸의 숙식을 돌보지 않았고, 오하이오 주, 켄터키 주, 테네시 주에서 설교와 교회들의 설립에 전념하였다. 1811년 10월 31일, 그는 19살의 엘리자베스의 조카 셀리아 윌슨 보웬(Celia Wilson Bowen)과 결혼하였고, 그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던 켄터키 주 부르본 군(郡) 소재 농장에 가족을 위한 집을 재건하였다. 한 해 만에 그와 셀리아는, 스톤에 따르면, “충고와 심한 설득으로 권유를 받고” 과부인 셀리아의 모친과 가까운 테네시 주로 이사하였다. 보웬 부인

은 그들을 좋은 농장에 자리 잡게 하였지만, 안락한 집이 없었다. 그 결과 스톤은 그의 시간 대부분을 농장의 발전과 집을 건축하는데다 전념하였다고 스톤은 적었다. 스톤은 또 1812년과 그 다음해에 각각 얻은 두 아들로 인해 식구가 늘어남으로써 『제언』(*An Address*)을 출판할 마음의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1815년 켄터키 주 멀세르(Mercer) 군(郡) 장로교 목사 토마스 클리랜드(Thomas Cleland)는 『소시니-아리안 간파됨』(*Socina-Arian Detected*)이란 이름을 붙인 100쪽 분량의 책이 스톤의 『제언』(*An Address*)에 대한 응답으로 출판하였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관하여 그의 마지막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7년간 다시 출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제언』(*An Address*)을 출판하고 나서 머지않아 시작된 그의 개인적인 정황들 속에서 생긴 심중팔구 또 다른 연속적인 변화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4.5 켄터키 주요 귀환

스톤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테네시 주에서 그의 장모가 농장의 권리를 그에게 주려고 계획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녀의 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양도하려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집을 짓고 농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보도하였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 그녀의 토지들이 켄터키 주법에 따라서 그녀의 자녀들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결정에 대해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장모의 결정을 알자마자 켄터키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셀리아가 그의 결심을 승낙했다고 보도하였다.

켄터키 주로 돌아간 후의 상황은 스톤이 일찍이 상상했을 법한 것 이상으로 더 어렵게 되었다. 1812년에 그는 부르본(Bourbon) 군(郡)의 농장을 팔았다. 한편 1812년의 전쟁으로 야

기된 수요와 더불어 켄터키 주의 통행료징수소와 오하이오 주와 미시시피 주의 증기선 통행의 출범이 농장의 소출가격을 상승시켰고, 켄터키 주에서의 농지가격이 크게 뛰어올랐다. 스톤이 켄터키 주에서 농장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가 팔았던 비슷한 토지의 가격이 두 배 이상 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스톤은 보도하였다.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켄터키 주에서 농장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톤은 그의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렉싱턴의 형제들”(the brethren in Lexington) 사이에서 정착하라는 초대 를 받아드렸다. 그러나 렉싱턴의 형제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조지아(Georgia) 주에서 교사로서 환영을 받았던 스톤은 그의 가족 부양을 위해서 렉싱턴에서 고등학교를 열라는 요청을 받았다.

1819년 스톤은 렉싱턴(Lexington)에서 북쪽으로 19킬로미터 떨어진 조지타운(Georgetown) 소재 리튼하우스 아카데미(Rittenhouse Academy)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해 가을 그는 조지타운 근처에 농장을 사서 그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1819-20의 가을과 겨울동안 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그의 직무들을 수행하는 한편, 그는 조지타운에서 설교를 하였고, 조지타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곧이어 교인이 2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스톤이 알지 못한 채 북 켄터키 주에 소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회집하여 스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 그를 아카데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것과 조지타운 근처의 농장을 구입하면서 생긴 빚을 갚기로 합의하였다. 스톤의 『제언』(*An Address*) 출판이후 또 다른 두 딸과 또 다른 한명의 아들(또 다른 한명의 아들인 스톤의 열 번째 아들은 1824년에 출생하였다.)까지 아홉 명으로 스톤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교회들은 실제적인 도움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19년 중대한 경제 불황에 빠졌고, 농장에 대한 어음 지불 시기가 닳았을 때 약속된 기금은 모아지지 않았다. 스톤은 농장 빚을 갚을 돈을 빌려야했

고, 그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조지타운에 학교를 열어야 했다. 이 수단으로 그는 그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그가 믿기를,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달린” 결과로 나빠졌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고, 거의 50살이 되었지만, 농장의 “힘든 노동으로 돌아갔다.”

4.6 삼위일체론과 대속론에 관한 논쟁을 일신

1821년 스톤은 『제언』(*An Address*)의 재판을 발행하였다. 재판의 서론에서 그는 “진리를 널리 보급하고픈 충정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게 “수정되고 상당히 증보된” 저술을 보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책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렉싱턴에서 가르치는 동안 스톤은 그가 “학식이 많은 유대인”으로 기술한 프로이센(Prussian) 의사와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할 기회를 활용하였다. 클리랜드(Thomas Cleland)는 스톤이 “수박겉핥기식의 헬라어와 심지어 그보다 못한 히브리어 실력을 갖췄다”고 밝히면서 흠정역(KJV) 성경의 어떤 본문들의 번역에 대한 스톤의 비판을 조롱하였다. 대속론 부분에서 스톤은 “내가 나의 『제언』(*An Address*) 초판을 발행한 이후 내가 습득한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밝힌 히브리어로부터 “몇 개의 요점들”을 추가하였다. 모든 수정은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룬 부분들에서 이뤄졌다. 초판에서 스톤은 와츠(Watts)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인간의* 영혼(as the *human* soul of Christ)과 동일한 것으로 분명히 간주하였다. 게다가 그를 태어난 혹은 만들어진 자로 말하였다. 클리랜드는 그가 아들을 단지 피조물로 믿는 아리우스주의(Arianism)라고 비난하였다. 재판에서 스톤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인간(the soul of Christ as human)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들을 “만들어진”(created) 자로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자신으로부터와 그 자신

에 의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로 예수님이 불렀다고 제시하였다. 스톤은 『존 모어랜드에게 보낸 서신』(*A Letter to John R. Moreland*)에서 그가 아리우스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스톤의 『제언』(*An Address*)의 재판을 읽었다고 주장한 모어랜드는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서신』(*A Letter to the Church at Mount-Pleasant*)에서 아들은 "만들어진 존재, 변하기 쉽고 변덕스런 피조물"이라는 가르침으로 스톤을 비난하였다. 모어랜드가 가르침으로 그를 비난한 견해는 아리우스의 견해였다고 스톤은 주장하였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스톤의 견해는 "아리우스의 것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들이었다. 아리우스를 정죄한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은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였다"는 것이었다고 스톤은 적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본체(substance)라면, "그는 만들어진 자가 아니며, 아버지로부터 그의 존재가 기원(derive)되었다"고 스톤은 말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반대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1822년 토마스 클리랜드는 스톤의 『제언』(*An Address*) 재판 본에 대한 172쪽짜리 리뷰(평론)를 『그의 "제언" 재판 본에서 그가 행한 최근의 공격들에 반(反)하여 주로 삼위일체론, 구세주의 신성론(神性論)과 대속론(代贖論)의 해명을 담은 발톤 W. 스톤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Barton W. Stone Containing a Vindication Principally of the Doctrines of the Trinity, the Divinity and Atonement of the Saviour, Against His Recent Attack in a Second Edition of His "Address"*)이란 제목을 붙여 발행하였다. 매도성(罵倒性)의 『소시나-아리안 간파됨』(*Socina-Arian Detected*)과 클리랜드의 『서신들』(*Letters*) 양자의 어조를 간파한 다음, 1824년 스톤은 클리랜드의 『서신들』(*Letters*)에 『토마스 클리랜드 박사의 논거들에 대한 대답으로 계획된 제임스 블라이스 박사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James Blythe, D.D. Designed as a Reply to the Arguments of Thomas Cleland, D.D.*)이란 제목의 책으로 응대하였다. 로버트 마샬과 함께 블라이스는 장로회의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스톤이 그에게 1798년 10월 그의 안수식 날에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던 인물이었다. 스톤은 『제언』(*An Address*)의 초판과 재판 모두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인격(persons) 혹은 “존재”(beings)로서 말하였지만, 성령을 존재로서 말한 적은 전혀 없었다. 스톤은 그의 『블라이스에게 보낸 서신들』(*Letters to James Blythe*)에서 성령에 관한 그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그 인격 자신(the person himself)으로가 아니라 한 인격(a person)으로 이해한다.”고 스톤은 썼다. “우리는 종종 성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읽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나 아들이 한 인격으로서 성령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나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읽지 않는다.”고 스톤은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사례들과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성서에는 성령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건의 사례나 교훈도 없다.”고 썼다. 1825년 스톤의 재판 『제언』(*An Address*)에 대한 논쟁에서 클리랜드는 『가면을 벗긴 일신론: 펼쳐진 반-기독교적 특징들: 그리고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그것의 기초; 블라이스 박사 목사에게 보낸 발통 W. 스톤의 서신들에 대한 대답에서』(*Unitarianism Unmasked: Its Anti-Christian Features Displayed: And Its Foundation Shewn to be Untenable; in a Reply to Mr. Barton W. Stone's Letters to the Rev. Dr. Blythe*)로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다.

5. 알렉산더 캠벨의 추종자들과 연개

1811년 마샬과 톰프슨이 장로교회로 회귀한 지 20년 이내에 서부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오키오 주, 인디애나 주에서 교인이 16,000명이 넘게 성장하였다. 많은 이들이 신앙고백과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가입하였고, 다른 이들은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꽤 많은 수가 침례(자) 교회들의 교인들이었고, 종종 침례(자) 교회 협의회들이 통째로 들어오곤 하였다. 이들은 오직 성서에도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자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였다.

스톤은 1824년 가을에 자기보다 16살이나 아래인 알렉산더 캠벨과 만났다. 그때 캠벨은 두 달간 켄터키 주 소재 렉싱턴, 베어사이(Versailles, 베르사유), 루이빌, 그보다 작은 지역들과 시골 교회들 사이를 순회 집회 중이었다. 51세였던 스톤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가 “종종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그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의 태도와 내용에 기뻐다“고 하였다. 캠벨이 켄터키 주 패리스(Paris)에 있을 때, 캠벨에게 보내진 스톤의 초청에 따라서 캠벨은 조지타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연단에 섰고, 숙식은 스톤의 집에서 하였다. 일 년 전 캠벨은 월간지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의 발행을 시작하였고, 월간지에 실은 기사에서 신앙고백서를 반대하였으며, 교회들이 신약성서에도 환원 혹은 사도 질서에도 개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캠벨의 견해로 인한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분열이 1825년에 예시(豫示)되었다. 루이빌 소재의 한 침례(자) 교회가 침례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Baptist Philadelphia Confession of Faith)를 반대하고, 성서만을 그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안내자로 삼으며, 켄터키 주에서 캠벨의 개혁에 공식적으로 공감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캠벨의 개혁에 대한 완강한 반대가 곧바로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826년 봄 켄터키 주 블룸필드(Bloomfield)의 침례자 스펜서 클락(Spencer Clack)은 캠벨이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에 실은 글들과 “옛 질서(사도전통)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관한 그의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고백서를 공격하면서 그 자신의 신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일 년 이

내에 캠벨의 반대자들은 캠벨의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잡지인 『배티스트 리코더』(*Baptist Recorder*)를 사용하고 있었고, 협의회들은 캠벨의 개혁들을 주창하는 설교자들을 정직(停職)시키기 시작하였다.

1827년 이후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된 캠벨의 개혁들 가운데 한 가지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였다. 침례자들은 침례의 설계나 목적이 교회의 회원들로서 신자들을 구별하거나 “인치기”(to seal)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쳤다. 침례를 받기 전에 후보자들은 전형적으로는 그들의 회심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 캠벨이 1823년 10월 장로교인 맥칼라(W. L. Maccalla)와 가진 캠벨의 토론회 둘째 날에 “침례의 설계와 취지”의 독특한 관점에 근거해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논의를 끌어들었다. 캠벨은 그 주제에 관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마 침례자들이나 유아세례자들이” 침례의 설계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캠벨이 제안하기를 신약성서에서 침례의 중요성을 지목한 소수의 신약성서의 본문들을 인용한 후에 그는 침례의 설계는 신자들에게 모든 죄로부터 “정화”(cleansing)의 확신 또는 “공식적인 표시”(formal token)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캠벨은 “침례가 신자에게 그가 지은 모든 죄의 공식적 혹은 개인적 사함이 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 성례의 성격과 취지를 크게 곡해하고 악용하지 않고서는 유아에게는 시행될 수 없다”고 논하였다.

캠벨의 전기 작가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은 캠벨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론을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교리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란 죄 사함과 성령의 내주의 확신을 원하는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하는 것을 리차드슨은 의미하였다. 리차드슨은 침례의 목적에 관한 캠벨의 견해를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 캠벨의 동료였던 월터 스코트(Walter Scott)였다고 주장하였다. 스코트는 1827년 8월에 마호

닝 침례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의 전도자¹¹⁾로 임명되었고, 11월에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826년 봄에 벌써 캠벨의 견해에 정통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설교가들은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권하고 있었다. 1827년 1월 스톤은 그 실행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였다.

1826년 11월 스톤은 월간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발행을 시작하였다. 스톤은 1827년 7월에 실은 “그리스도인 침례자에게”란 제목의 기사에서 캠벨에게 제안하였다. 그는 캠벨의 재능들과 학식과 캠벨이 따랐던 과정의 “보편적” 찬성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였다. “여러 점에서 귀하의 종교적인 견해들은 우리의 것과 또 우리가 희망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노력들을 지향했던 한 가지 점에 일치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리를 합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하기를, “우리는 삼손의 팔과 다윗의 용기로 해묵은 파당의 기초를 허무는 귀하를 지켜보았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캠벨과 그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능력의 전쟁,”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캠벨이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년간 교전했다고 그가 주장한 전쟁을 따랐던 것은 “무관심한 구경꾼들로서가 아니었다.”고 관찰하였다.

그러나 스톤은 캠벨을 찬양하거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거나 혹은 종교(신앙) 논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 캠벨로부터 “종교에 관한 추측(사색)의 사악함을 좀 더 충분하게”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스톤은 캠벨이 그의 선배들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관하여 추측하고 이론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놀람과 슬픔을 표시하였다. 스톤은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의 5월분 발행에 실린 삼위일체(the Trinity)에 관한 기사를 말하고 있었다. 다

11) 역자 주: 부흥사.

음 해에 걸쳐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 공포된 기사들은 스톤과 캠벨이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톤이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목회 후보자를 안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반면, 캠벨은 회중(교회)이 투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다. 주의 만찬에 관하여 캠벨은 성찬을 침수세례자에게 국한해야 한다고 가르친 반면, 스톤은 그 침수세례 하나만을 침례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신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성찬을 침수세례 받은 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개혁가들¹²⁾과 그리스도인들¹³⁾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었다.

10년 말엽까지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분열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 아마 켄터키 주 침례자들의 4분의 1내지 3분의 1까지 (어쩌면 10,000정도) 캠벨의 편에 섰다.¹⁴⁾ 1829년 9월 스톤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 보도하기를, 최근에 “한 유덕한 침례자 형제가” 왜 그리스도인들(Christians)과 “신약성서 침례자들이”(New Testament Baptists) 하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었다고 하였다. 스톤은 “침례자들 사이에 신약성서 개혁가들이 우리가 인정한 부분을 보편적으로 행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모든 파당의 이름들을 거부하였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취하였으며, 그들은 피차 “성서를 읽고, 그들 스스로 그것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들은 “친교의 시금석으로써 특정한 교리들을 믿도록 피차에 묶지” 않았다. 두 단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방해할 아무 것도 우리 가운데 없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그것에 반대

12) 역자 주: 캠벨 측의 호칭.

13) 역자 주: 스톤 측의 호칭.

14) 역자 주: 1800년대 초기 켄터키 주는 변방 개척지였으므로 인구가 많지 않았다.

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마음)으로 하나이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끈들을 튼튼히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덧붙였다.

캠벨은 스톤의 진술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뱀티스트』(*Christian Baptist*)와 그것의 후속지(後續誌)인 『새천년 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아리우스주의(Arianism)와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피력하도록 허락하였다. 스톤은 개혁가들이 그들의 “침수세례에 대한 독특한 견해들”을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1830년 8월 두 번째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개혁가들(Reformers)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의 연합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번에는 캠벨 자신이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응답하였다. 그는 “죄 사함”(Remission of Sins)에 관해서 그가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 기고한 “부록”(Extra)을 스톤이 검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for remission of sins*)를 뺀, 어떤 침수세례도 없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킬 것이라는 그의 소망을 피력하였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관해서 그는 그것이 “신성(Deity)의 묘한 견해들”(peculiar views)을 연상시켜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분파”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취한다면, 어떻게 개혁가들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의 준수와 같은 개혁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차별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개혁가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이름을 추천하게 되었다.

스톤은 캠벨의 대답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830년 9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매주일 주의 만찬을 정말 지지하고 나왔다. 캠벨은 1830년 10월호 『

새천년 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스톤이 주의 만찬의 매주일 기념을 승인한 것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록 스톤이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스톤이 죄 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그가 “얼마 전” 생각해봤다는 것을 추가하였다. 1831년 8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는 관행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의 헌신을 방어하였다.

스톤과 캠벨사이의 주고받기 논쟁은 1831년 12월까지 계속되었지만, 스톤의 입장에서는 연합에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쨌든 간에 스톤은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연합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였다. 그해 초에 그는 개혁가 소속 존 T. 존슨(John T. Johnson)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계를 형성하였다. 변호사요 전 국회의원이었던 존슨은 조지타운 서쪽의 그레이트 크로싱즈(Great Crossings)에 있는 침례자 교회의 교인이었다. 그레이트 크로싱즈 침례자 교회를 캠벨의 개혁으로 이끄는 데 실패한 존슨과 다른 두 사람은 그 교회를 그만두고 1831년 2월에 그레이트 크로싱즈에 제자들의 교회(회중)를 조직하였다. 10월에 조지타운과 그레이트 크로싱즈 일대의 제자들(Disciples, 캠벨 측)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스톤 측)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832년판 책의 설명에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공동 편집인으로 존슨이 스톤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11월 말에 개혁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관하여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논의가 조지타운에서 있었다. 참석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 소속 존 로저스(John Rogers)와 개혁가 소속 존 스미스(John Smith)가 있었다. 스미스와 로저스는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회중들을 절충하여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켄터키 주 전역을 함께 여행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이 노력을 출범시키기 전에 조지타운에서 크리스마스를 끼고 4일

간의 집회와 그와 유사한 집회를 신년을 끼고 렉싱턴에서 개최할 것과 주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이 참석하도록 초청할 것을 합의하였다.

조지타운 논의에 의해서 계획된 4일간의 크리스마스와 신년 집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 모두에 의해서 좋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존 스미스의 전기 작가 존 아우구스투스 윌리엄스(John Augustus Williams)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협의하였다.” 비록 집회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들은 없지만, 윌리엄스는 렉싱턴 집회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혁가 소속의 스미스는 개혁가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서 위에서만 연합할 것을 요청하였다. 스톤은 스미스의 호소를 지지하는 자신의 소견을 마치면서 “환희와 형제 우애로 전율하는 손”(a hand trembling with rapture and brotherly love)을 스미스에게 내밀었고, 스미스는 “진실한 친구의 징표들이 가득 담긴 손으로”(by a hand full of the honest pledges of fellowship) 스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았고, “한 노래가 일었다.” 주일에 참석자들은 다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다.

1832년 1월호에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선포하였다. “이 연합을 증대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개혁가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알려진 존 스미스와 존 로저스가 “함께 말을 타고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기 위해서 또 기술된 양쪽 교회들의 연합된 기부금들의 지원을 동등하게 받기 위해서” 선발되었음을 또한 알렸다.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주들과 지방들에서 그래서 합칠 것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에서 스톤과 그의 새로운 공동편집자는 대답하기를, “만일 그들이 그들의 고백에서 성실하고, 파당심이 없다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합칠 것이다.”고 하였다. 공동편집자들은 인디애나 주의 러쉬(Rush) 군(郡)과 테네시 주의 모리(Maury) 군(郡)에서의 연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연합의

정신(the spirit of union)이 세 개 주(州)들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법에서 동시에 진척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뻐하였다.

스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연합의 열쇠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정신(the spirit)이었다. 1833년 10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연합의 네 종류를 기술하였다. 책 연합(Book union)은 하나의 신조나 신앙고백서 위에 세워졌다. 머리 연합(Head union)은 고백서의 조항들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책 연합과 같다. 물 연합(Water union)은 물에 들어가는 침수세례위에 세워졌다. 불 연합(Fire union)은 “정신의 일치, 즉 진리의 정신위에 세워진 하나의 연합”이었다. 불 또는 정신 연합은, 그가 주장하기를, 홀로 “설”(stand) 것이며, 다른 어떤 연합도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 “이 정신은 기록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인위적인 형식이나 일련의 견해들로 되지 않고, 죄인들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알려진 주님의 모든 명령들을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이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즉 모든 종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이끌어준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불 연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가 말하기를, “잔가지 다발을 한데 묶어서 그것들을 함께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였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이 “어떻게든 상호 연합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살아 있는 줄기에 연합해야 하고, 그것의 수액을 받아야 하며, 정신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정신 안에서 피차 연합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그의 정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킬 많은 계획들을 궁리하였지만, 모두 헛되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오직 한 가지 효과적인 계획, 즉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 안에서 걷는 계획이 있을 뿐이다.”고 그는 충고하였다.

그리스도인들과 개혁가들의 연합을 성취시키려는 스톤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들은 켄터키 주에서 크게 성공적이었다. 캠벨의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가르침을 거부한 많은 오하이오 주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인디애나 주 그리스도인들이 개혁가들과 합치는 것을 거절하였다. 스톤은 여생을 그 정신에서 연합에 힘썼다. 그러나 1834년까지 그의 관심의 상당 부분은 그의 가족이 켄터키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이주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 이주는 그의 목회기간 내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전념했던 이슈인 노예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6. 교회와 사회

6.1 노예제도에 대한 초기 반개

스톤은 케인 리지(Cane Ridge)와 콘코드(Concord) 소재 회중들(교회들), 즉 그들의 반노예제도 정서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회중들 사이에 정착한지 얼마 못되어 노예제도의 반대자가 되었다. 이웃 장로교회의 목사 사무엘 렌널즈(Samuel Rennels)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톤은 왜 그가 노예해방에 찬성하는지를 8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편지 가운데 날짜와 첫 세 가지 이유들이 적힌 부분은 분실되었다. 남아 있는 다섯 가지 이유들은 노예제도의 잔인성과 가족 책무들 수행의 상반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스톤은 단언하기를, “노예제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묶는 끈들, 즉 다른 모든 것들의 가장 강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끈들을 풀어버린다. 이들 끈들 가운데 한 가지가 부부애이다. 사랑하는 남편이 울며 어찌할 줄 모른 채 포옹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즉 짐승처럼 팔려서 멀리 끌려갈 아내에게서 떼어진다.... 어떻게 이 사랑하는 부부의 행복이 끊임없이 파괴되어야

하는가! 필경 그들에겐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dear to both' 가 선을 그어 지워짐)...”라고 하였다. “말해보라. 이것이 옳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Or)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우리의 아내들과 결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그는 렌널즈에게 물었다. 스톤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 편지를 끝냈다. “많은 이들이”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는 주시하였다. 그는 계속하기를, 어떤 경우든 “자녀들은 시민 정책이 하나님의 명시된 뜻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800년 스톤은 케인 리지와 콘코드 교회들의 결의안을 서(西)렉싱턴 장로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의안은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고, 매우 악질적이며, 따라서, 그런 관행이 지속되긴 하겠지만, 교회의 특권들에서 배제시키기에 충분하다”(consequently sufficient to exclude such as will continue in the practice of it from the privileges of the church)고 주장하였다. 장로회는 노예 소유주들은 교회의 특권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로회의 대다수 의견이지만, 그들은 상위의 심판기구들로부터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그 문제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의안을 버지니아 주 노회와 총회에 보냈다.

다음 해에 스톤은 그의 모친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두 명의 노예들, 네드(Ned)와 루시(Lucy)를 해방하였다. 부르본(Bourbon)군(郡) 법원에 제출한 해방 증서에서 스톤은 노예제도는 시민의 자유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원칙들에 모순“ 된다고 단언하였다. 그가 보도하기를 30세쯤이었던 네드와 2년 후 그가 보도하기를 12살가량이었던 루시를 해방하기 위한 그의 준비들은 10년 후 점증하는 노예해방의 철학, 즉 해방하기 전에 노예들이 자유를 누릴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철학과 일치하였다. 스톤은 네드에게 자유를 주기 전에 기술을 연마시켰다. 그는 루시에게 젊은

여인으로서 자유를 주기 전에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서와 신앙”으로 키웠다.

1808년에 가서 스톤은 교회에서 노예 소유주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바꿨다. 이것은 스톤이 켄터키 주 노회와 결별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갈등들의 결과 때문이었을 것이다. 렉싱턴 근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스톤은 “그의 지식이 미치는 한, 그들 가운데 노예들을 소유하고, 그들의 행위와 품행이 올곧은 어떤 교인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다른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 그들의 상당수가 그날의 짐과 열기를 짊어졌고,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이름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다는 것, 그들에게 단교를 선언하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극도로 잔인하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예 해방론자들이 그들과 지속적으로 친교 하는 것임을 스톤은 또한 확신했을는지 모른다. 그가 1807년에 신자의 침수세례를 성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20년 이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침수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5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고 그는 나중에 적었다.

6.2 해방 흑인들의 이주 지원 및 알리노이 주로 이사

교회에서 노예 소유주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스톤의 입장은 또한 노예해방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스톤이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 사이에서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사무엘 렌널즈(Samuel Rennels)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렌널즈에게 충고하였지만, 스톤의 전기 작가 존 로저스는 “일반적인 것으로써 해방된 흑인들이 갖는 자유라 부르는 무언가가 그들과 백인 모두에게 불행이다”는 “이어진 관찰”이 스톤을 확신시켰다고 적었다. 그래서

1820년대 기간에 스톤은 미주 이주 단체(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의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그의 진술된 목적은 “미주 대륙에서든 아프리카 대륙에서든 이주민 거류지(a colonial retreat)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해방 유색 국민의 상태(Free People of Colour)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사회집단의 설립자들은 노예 소유주들이 그들의 이동을 확신한다면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자발적인 기구로써 1816년에 설립된 그 사회집단은 국민기금조성을 추구하였다. 1821년 서부 아프리카에 부지를 구입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해방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이주시킬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라이베리아 이주지(the colony of Liberia)를 세웠다.

1834년 9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는 그해 가을 일리노이 주 잭슨빌(Jacksonville)로 이사하려는 스톤의 의도를 담은 통지를 실었다. 비록 스톤은 자신의 이주 결심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오랜 독자들은 그것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의 반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1830년 12월에 스톤은 그가 노예 소유주가 되었다는 루머를 해명하였다. 루머의 근거는 스톤이 조지타운에 있는 그의 집에 한 명의 아프리카 남성과 두 명의 아프리카 여성과 네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스톤은 이 사람들이 고인이 된 장모의 유언, 즉 그들을 수탁자들의 지배아래 놓고 있는 유서에 따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구히 유산으로 남겨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으므로, 그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그들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경향이 심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같은 노예해방은 그의 가족이 자유로운 주(州)로 이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진 노예들은 해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1830년에서 1835년까지 스톤은 일리노이 주 잭슨빌 부근에 네

개의 부지를 구입하였다. 1832년 10월 30일에 광장 남쪽 두 블록 떨어진 잭슨빌에 그의 집터가 될 세 개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1834년 늦은 가을 스톤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다. 4년 후에 스톤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진 아프리카인들에 관한 그의 의도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해하였다. 켄터키어로 여행 중일 때 스톤은 예전의 노예들이 자유인의 한 가족으로서 조지타운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방문하였다.

6.3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지원

스톤은 1830년대 초 내내 계속해서 이주 단체(Colonization Society)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1833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스톤의 일리노이 주(州)로의 이사는, 아프리카인들을 미국에 그대로 남겨둔 채, 이주 계획(colonization scheme)의 포기과 노예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요구의 승인과 동시에 일어났다. 1835년 4월호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의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가 쓴 (by William Lloyd Garrison's New England Anti-Slavery Society)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노예제도에 관한 제언"(Address to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Slavery)의 연재를 시작하였다.

스톤은 3회분을 실은 후에 "제언"의 출판을 그만 두었다. 그 대신에 그는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 7월호에서 바람직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즉각적인 폐지를 옹호하는 두 개의 기사들을 실었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1월호에서 그는 왜 그가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의 제언"의 연재를 6월에 3회째 분을 실고 나서 그만뒀는지를 설명하였다. "제언"을 실기 시작한지 얼마 못해서 "북부에

서 극단적인 폐지주의자들의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들었고, 더 이상 실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의 흥분상태에서는 좋게 하기보다는 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였다. 그가 언급한 나쁜 영향들은 폐지론자들에 **반대한** 소란들이었고 폭력적인 행동들이었으며,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모든 노력들에 반대한 노예제도 지지자들의 점증하는 저항이었다. 그는 “이들 몇 회분들의 출판에 대해서 동부와 남부에 사는 나의 오랜 후원자들과 친구들 여러 명이 불쾌한 일을 당했고,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중단을 주문하였다고 적었다. 그는 단언하기를, “나는 거의 40년 동안 노예제도의 양심적 반대자였던 원칙과 실천이 있으나 악행들을 고칠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것이 이뤄져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단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였다.

6.4 노예, 그리스도인 연합, 전 천년설

스톤은 노예제도가 천년왕국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게다가 그는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였다. 후천년설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동안 영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전천년설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심판 가운데 오실 것이고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개인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스톤은 적어도 1830년대 이후로부터는 전천년설론자였다. 스톤의 천년왕국론의 열쇠는 스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두 가지, 즉 “유대인들의 돌아옴(회개)과 구원”과 “들어온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좌우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스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천년이 바뀌는 중심점이었다. 스톤은 하나님께서 19세기에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

에 천년왕국이 가까웠고, 또 그것과 더불어 노예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확신하였는데, 1835년에 그가 인정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폐지될 수단을 그가 몰랐던 때에도 그랬다.

한편 스톤의 전천년설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의 위협으로 노예 소유주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권고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었다.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스톤의 첫 번째 전천년설의 적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라이베리아로 가도록 허락하라는 그의 마지막 호소가 되고 만 것에서 나타났다. “노예들이 그 속에 포함된 바빌론의 상품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지 말라”고 1833년에 그는 충고하였다. “보라. 그가 신속히 오신다.” 스톤은 그가 왜 뉴잉글랜드 반노예제도 단체의 “제언”을 그만 뒀는가를 설명한 후에 그의 전천년설을 1835년 11월에 두 번째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에서 적용하였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원칙과 실천들을 시세에 영합함으로써 그들의 기초인 성서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권고하였다. “의로운 심판의 날은 가까웠다. -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육체와 영혼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그날을 준비하라.”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하였다.

6.5 반정부입장 채택 및 청화주의

1820년대 스톤은 의회가 해방 노예들의 이주를 책임지라(to fund)고 요구하는 청원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184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노예제도를 종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톤의 환멸과 나타난 대중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그의 반대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도록 만들었다. 스톤은 이 제안을 1842년부터 1844년까지 발행된 네 개의 시리즈 기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소지한 민간과 군(軍)의 직책들”(Civil and Military Offices Sought and Held by Christians), “옛 시대의 반성”(Reflections of Old Age), “T. P. 웨어에게 보낸 답장”(Reply to T. P. Ware)[시리즈의 첫 회분 기사에 대응하여 스톤에게 편지를 보낸 미시시피의 변호사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구(新舊) 설교가 사이의 인터뷰”(An Interview between an Old and Young Preacher)에 관한 두 “그리스도인 형제” 사이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이들 네 개의 기사들에서 스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개의 논의를 발전시켰다. 첫 번째 논의는 정부에의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부정적인 충격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적 통치와 예수님의 법들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시민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대화에서 스톤의 견해를 대표한 형제는 시민 정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우리의 왕의 것에 반대 입장에 서지 아니한 그것들과 그것들의 모든 법령들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세를 지불해야 할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지불할 자에게 관세를, 경의를 표해야 할 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4장을 언급하면서 상충되는 사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단언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정부들을 위해서 또 그들 자신의 정부에서 “매우 활기차고 빛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 정부들보다 그것이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어 그것을 받게 하고 구원 얻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관련된 것이 병역의 이슈였다. 1812년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평화운동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침략과 국방사이에서 무력의 사용을 구분지어 전자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838년에 헨리 클라크

라이트(Henry Clark Wright)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이 이끈 그 운동내의 “극단주의자들”은 비저항 단체(Non-Resistance Society)를 구성하여 정당방위(正當防衛)에 서조차 무력사용에 반대하였다. 라이트와 게리슨은 비저항의 실천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스톤은 1827년 말에 침략에 맞서 그들 자신들을 방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는 논의를 개진하였다. 1844년 7월까지 그는 비저항의 주창자였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국가는, 그러면 서도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 그 정부는 반기독교적이며,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그들은 불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그는 경고하였다.

스톤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교회 안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란 것을 알았다. 1842년 대화에서 스톤의 견해를 대표하는 성격은 그의 견해들이 “광신적 행위 또는 극단주의”로 분류될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주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스톤이 그것을 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견지한 견해들의 연장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T. P. 웨어에게 보낸 답장”(Reply to T. P. Ware)에서 그는 “우리의 형제들은 인위적인 신조들과 교회 통치법들에 반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진행해왔던 것의 적법한 이슈를 보지 못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통치의 토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7. 스톤-캠벨 운동과 그리스도인 연합에 관한 후기 성찰

스톤은 1844년에 그리스도인 연합에 대한 전망들이 “어둡다”

고 진술하였다. 그는 특히 목회자들이 그들의 진리의 관점에 일치하지 않고, 또 그들의 체계들에 완전히 묶여서 그것들에서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고 적었다. 1844년 3월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 실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기술하기를, 일찍이 그는 "다양한 분파들에서 매우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대하고, 그들 분파의 인위적인 신조들을 배척하며, 그들의 믿음과 삶이 형성되어야할 규칙으로써 오직 성서만을 취하고, 그들의 분파 이름을 버리며, 좋고 오랜 이름 그리스도인을 고수하였을 때, 그리스도인 연합이 곧 실현되리라는 희망으로 크게 고무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기술하기를, "만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가 시작한대로 성령의 안위 속에서 살고 걸었다면, 틀림없이, 기대했던 그 결과는 실현되었을 것이다. 모든 분파의 정말 좋은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고, 매우 거룩한 목적으로 연합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관대함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데 게을리 하였고," 어떤 이들은 "견해들로 인한 헛된 논쟁에 치우쳤고, 자극하여 반박과 토론과 다툼이 일게 하였으며," 또 많은 이들이 "순수한 기독교어로 영혼들을 회심시키려하기보다는 개종시키려는데 더 열중한다."고 애석해하였다. 3년 전에 그는 "그 비밀은 이렇다. 예수님의 정신(sprit), 이 정신의 결핍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큰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회복된 이 정신은 연합의 큰 원인이 될 것이다."고 단언하였다. "이 정신으로 당파심은 사망할 것이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는 "그것 없는 공언만의 반당파심은 어떤 다른 것만큼 지독한 당파심이 될 것이며, 심중팔구 더욱 편협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곧 성취될 것 이라는 그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1844년 6월에 그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떤 생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역을 통해서 몰아가시거나 이끌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킬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천주교가

득세할는지 모른다. 그러면 경각심을 품은 목자들을 몰아세워 공동 안전을 취하게 하실는지 모른다.”는 의향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그들의 무리(양떼)를 연합시킬는지 모르며, 그것을 전 세계로 번지게 하실는지 모른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로 멈춘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교회를 연합시키실는지 모른다고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연합이 참된 교회를 향한 가톨릭교회의 탄압 없이 성취될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의 회복에 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대한 실망을 고백한 1844년 3월 기사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하기를,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배를 조종할만한 현명하고 거룩한 인물들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된 좋은 것들이 아직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1844년 5월에 발행된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의 14권 4호의 서언에서 스톤은 모든 이름의 개신교회들은 “가톨릭의 영향력을 좌절시키거나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반가톨릭 단체들을” 조직했거나 조직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같은 단체들이 “진리의 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반대”의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의 우려를 표시한 후에, 스톤은 그러나 만일 “개신교회들 사이의 모든 분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에 거룩해지고 겸손하여지며 순종하려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기로 동의한다면, 만일 그들이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토론들과 사람들과의 분쟁을 멈추기로 동의한다면, 그리고 지상에서 경건과 형제의 우애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기로 동의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들의 인위적인 조직들과 강령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성서와 오직 성서만으로 바꾼다면,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여지고, 그들의 무리(양떼)와 세계 앞에서 본을 보이며,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을 권고하여 애정이 넘치도록 그들을 따르도록 할 것을 동의한다면,

만약 그들이 열정적이고 엄숙하며 신실한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서 함께 만날 것을 동의한다면, 그러면 가톨릭의 전파가 멈출 것이고, 회의론은, 주님께 개심하지 않는다면, 깨뜨려질 것이고, 침묵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에 근접해야 가톨릭의 철장(鐵杖)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적어도 이쯤은 돼야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일 년쯤 전에 스톤은 오직 성서 위에서, 그가 성서적 연합의 순수한 매력이라고 파악한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한 그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는 “지금 기독교계에는 커다란 상반되는 권력들, 즉 교부들의 전통들 위에 세운 로마천주교회와 그 같은 모든 전통들을 거부하고 오직 성서위에서만 세운 자들이 있을 뿐이다”고 한 가톨릭 사제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가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던 농촌세계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그는 “나는 메마른 초장에 갇힌 채 그들의 울타리의 틈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풍성한 초장에서 풀을 뜯는 한 무리를 보고 있는 양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울타리를 따라 뛰면서 울 밖의 양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열망으로 펼치는 그들의 시위들을 보았다.”라고 썼다. 그는 계속해서 “마침내 한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많은 양들이 뒤따랐다.”고 적었다.

스톤은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인 연합이 즉시 이뤄지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에(by the immediate prospects of Christian union) 1844년의 여름에 낙심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조언을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맞물려야(engage)한다. 또 몸집이 크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각자는 본심에서 시작하라”(let each one begin in himself).

8. 죽음과 장사

1844년 10월 2일에 스톤은 그의 유언을 작성하였다. 그다음 날 그는 셀리아(Celia)와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주리 주에 사는 자녀들과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잭슨빌을 출발하였다. 미주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차 지구 집회가 1844년 10월 18-21일까지 콜롬비아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분(Boone) 군(郡) 소재 베어 크리크 교회(Bear Creek Church)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1일 날 설교 후, 일리노이 주로 출발하기 전 스톤은 미주리 주에서 의사였던 아들과 하루나 이틀을 보냈다. 하니발(Hannibal)에 못 미쳐서 그는 그의 큰 딸의 집에 들렀다. 가족들에 에워싸인 채 그는 1844년 11월 9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그의 일리노이 주 농장에 있는 아카시아 숲에 매장되었다. 농장은 1846년에 팔렸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묘지(the cemetery of the Antioch Christian Church)로 이장되었다. 1847년 그의 유물은 케인 리지(Cane Ridge)로 옮겨졌다.

9. 스톤-캠벨 운동에 관한 스톤의 성향

스톤-캠벨의 운동에서 스톤의 지도력은 그 운동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했던 캠벨의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다. 신자들의 침수세례만이 유일한 침례라고 아직 확신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의 만찬에 관한 스톤의 주장은 그 운동의 규범적인 자세가 된 것, 즉 그리스도는 테이블의 주인이요, 교회는 초대하지도 내쫓지도 않는다는 것의 기초였다. 스톤의 평화주의와 반정부 입장은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다른 초기 지도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1930년대에 스톤은 그들의 관심사인 그리스도인의 일치(Christian unity)의 선구자로 스톤을 보았던 현대에

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에 의해서 전용되었다. 좀 더 최근에는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세계를 단정하는 방법들만큼(as the world-affirming ways of) 그들이 보는 것에 따라 내리는 판단으로 스톤의 전천년설, 평화주의, 반정부주의 자세를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인들로부터 스톤이 전용되어져왔다.

참고 목록

- Dunnavant, Anthony L. Ed.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1992).
- Hughes, Richard T. *Reviving the Ancient Faith: The Story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96).
- Stone, Barton Warren. *Biography of Elder Barton Warren Stone, Written by Himself, with Additions and Reflections by Eld John Rogers* (1847), reprinted in *The Cane Ridge Reader* (1972).
- Ware, Charles C. *Barton Warren Stone, Pathfinder of Christian Union* (1932).
- West, William Garrett. *Barton Warren Stone: Early American Advocate of Christian Unity* (1954).
- Williams, D. Newell. *Barton Stone: A Spiritual Biography* (2000).

제2장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¹⁵⁾

본문

유언(遺言)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 성서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매우 건설하고 강성하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온전히 건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표를 파송한 모든 교회들이(all delegated bodies) 단번에 죽기로 지정 받음을 알고, 또 그 같은 모든 교회들의 삶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부르본(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 리지(Caneridge)에 모여 아래와 같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유언서를 만들어 제정한다.

먼저(imprimis),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will). 오직 한 몸과 한 성령이 있을 뿐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15)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입었기 때문이다.

조항(item). 우리는 구별을 위한 명칭 레버렌드(Reverend)¹⁾란 호칭이 잊힐 것과 하나님의 유산(God's heritage)에는 오직 한 주(Lord) 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One)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교회 치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대표로 위임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은 영원히 멈출 것과 사람들은 성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서를 연구할 것과 철학의 혼합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유언한다(will).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항(item).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치(內治/internal government) 즉 교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가르칠 만한 체험적 신앙과 진지함과 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개개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개교회의 설교자를 선택하며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하며 서명요구나 승낙 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며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인 혹은 다수의 대표에게

1) 역자 주: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존칭임.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지금부터 사람들은 성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착실한 안내자로 삼을 것과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책들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만큼,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을 유언한다(will). 한 책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조항(item).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임금 삼으려 했으며, 그것이 현재 되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형제들은 만세 반석에게로 가야 할 것과 장래를 위해 예수를 따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켄터키 주 노회(Synod of Kentucky)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²⁾에서 떠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교인을 조사할 것과 의심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자를 즉각 정직(停職/suspend)시켜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행하며,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최근 렉싱턴(Lexington)에서 발행된 두 문서의 저자인 모씨(Ja--- ---)는 당파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열성 때문에 격려를 받기를 유언한다(will).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매 교단들은 그들이 성서를 조심스럽게 읽으며, 그들이 성서 안에 결정된 그들의 운명

2) 역자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을 보게 되며,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준비할 것을 유언한다 (will).

조인장소(L. S.): 스프링필드 장로회

1804년 6월 28일

증인(Witnesses):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발톤 스톤(B. W. Stone),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

증인들의 해명서 (The Witnesses' Address)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증인으로 서명한 우리들은 이 기구(that body)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에 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을 것을 알고 이 기구가 처음 조직되면서부터 사랑 안에서 피차 결합하였고, 화평과 화합 안에서 지냈으며, 자발적이며 행복한 죽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구를 해체하게 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주로 인위적인 신조들과 치리 형태들의 채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야기되는 분열과 당파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이 장로회란 이름아래 연합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사랑과 연합의 정신을 배양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한 당파였다는 생각을 극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역에서의 그들의 성공에 비례

하여 증대되었다. 질투심들이 다른 교파 교단들의 마음속에서 불붙게 되었고, 유혹이 여러 당파들과 연결된 자들 앞에 놓여 동일한 빛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치리의 단순성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이란 글을 출판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인위적인 창안들과 군주적인 전통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그들은 곧 바로 신약성서에는 현대와 같은 교회조직들(confederacies), 즉 당회(Church Sessions), 지방노회(Presbyteries), 주노회(Synods), 전국총회(General Assemblies)와 같은 사례나 지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입한 조직(connection) 위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한 모퉁이 돌³⁾인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교회치리에 관한 그들의 관점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인위적인 조직(a self-constituted body)의 이름과 승낙 아래서 벗어나 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와 당파의 존재 때문에 주님과 떨어져 죽어 가는 죄인들, 예수가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친(the precious cause of Jesus)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랑의 원리 때문에(from), 그들은 신선한 마음의 관점에서 멀어지는(sink) 소음과 격분의 당파싸움에서 후퇴하여 해체하여 죽기로 기꺼이 합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해체(death)가 세상에 큰 소득이 될 것을 믿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죽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의 범위들 안에 너무 가깝게

3) 역자 주: 우리말 성경에는 corner stone를 ‘머릿돌’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머릿돌과 성경의 모퉁이 돌의 개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퉁이 돌은 집의 기초로 놓인 거대한 돌로서 사방 모서리에 놓이며 그 돌들을 중심으로 방향과 각도가 결정된다. 어떤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가 4m x 2m나 되는 돌도 있다고 전한다.

붙잡아 둔 그들의 죽을 운명인 틀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자유의 땅에서 살고 또 말한다. 그들은 유빌레(jubilee)의 나팔을 불며, 강한 자들(the mighty)에 대항하여 주님의 도움에 자진해서 헌신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도울 것이며, 장로들과 혹은 목사들을 안수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신의 축복을 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며, 함께 교제(commune)하며, 주님의 사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역할(hands)을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속한 저들 기능들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을 계획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한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들에서는 실수도 범하게 될 것이란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황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며, 그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게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그분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을 온통 찬양의 도시로 만드시기까지 그분에게 쉬임을 드리지 말자. 우리가 바라기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교회가 연합함으로 종결될 우리의 서부 지역(Western country)에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런 사역 속에 그분의 선하심의 펼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연합한다.

해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는 미국 켄터키(Kentucky) 주(州) 부르본(Bourbon) 군(郡) 케인 리지(Caneridge)에 위치한 발톤 스톤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스프링필드 장로회가 1804년 6

월 28일 지방노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유언서와 해명서를 완성한 것이다. 본 문서는 리차드 맥네마르의 협조아래 주로 발톤 스톤이 작성하였고, 여섯 명의 증인들이 서명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하는 최초의 문서이며,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이 초안하여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범을 선포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유언서 전반부는 12개 이상의 성구⁴⁾가 인용 또는 부분 사용되고 있어, 본 문서가 성서에 바탕을 둔 유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발톤 스톤은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를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분열과 파당을 멈추고 죽어 해체되어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각 조항에서는 존귀를 받아야 할 자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시며,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막고, 성령의 법을 어기는 교회법과 교권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성서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을 규범 짓는 유일한 책임을 선포하면서 세속학문이 성서보다 우위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훈련된 참 일군을 선별하여 파송할 자치권과 그 책임을 회복해야 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후반부 해명서에서는 유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본 문서의 탄생은 적어도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 제임스 오켈리는 발톤 스톤보다 앞서 이미 감리교

4) 히 9:16-17; 고전 15:36; 요 12:24; 히 12:26-27; 엡 4:4-6; 롬 8:2; 요 1:32; 히 5:4; 눅 10:2; 계 2:2; 눅 21:28. cf. 마 5: 29-30; 요 6:15.

단에서 교회치리와 목회자 임명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본 문서는 장로교단안에서 벌어진 자유로운 성서연구를 위한 선투(善鬪)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몇몇 사람들이 성서해석과 신학적 결론을 가지고 울타리를 좁게 치는 파당주의를 극복하고 더 큰 범위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자유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 하였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인위적인 신조나 교리 혹은 교회법에 얽매임이 없이 성서로 돌아가 성서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성서가 금하는 것을 금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절대적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될 때에 교회법이나 교권에 지배됨이 없이 그리스도와 성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성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피로 사신 바 그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소속은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된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본 문서를 작성한 발톤 워렌 스톤(Barton Warren Stone)은 1772년 12월 24일 미국 남부 머릴랜드 주 찰스 카운티 폴트 토바코에 가까운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세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아홉 살 때에 독립전쟁이 있었다. 발톤 스톤은 재산

분배를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대학교육에 투자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에서 멀지 않은 유명한 다윗 콜드웰 아카데미(David Caldwell Academy)에 등록하여 다른 많은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삼년간의 고전수업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설교를 듣고 회심 체험을 하게 된다. 그가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주제로 한 설교보다는 잔잔하게 마음에 와 닿는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에 감화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작성한 유언서에서 품기는 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평화주의와 타고난 실천적 연합의 정신,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그의 깊은 관심에서 출발되었다. 스톤은 29세에 엘리자 캠벨(Eliza Campbell)과 결혼하였다.

졸업시험에 합격한 후 설교 자격증을 따기까지 일 년 동안 스톤은 조지아 주 워싱턴에 위치한 수콧트 아카데미(Succoth Academy)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이 학교 교장이었던 호프 홀(Hope Hull)은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의 운동을 지원하는 감리교인 이었다. 여기서 스톤은 홀과 오켈리 운동의 영향을 받고 교권 민주화의 필요성을 수련 받게 된다. 조지아 주에서 돌아와 설교 자격증을 받은 스톤은 목사안수를 받기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버지니아 주로 설교여행을 시작했고, 테네시주를 거쳐 켄터키 주로 옮겨와 렉싱턴에서 가까운 케인 리지와 콘코드 두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supply minister)가 되어 불과 수개월 만에 각각 30명, 50명의 새신자를 얻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톤은 그 다음 해인 1798년에 임직 목회자로 초대되었다. 이 후, 목사 안수식 때에, 스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서에서 가르친 체계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 드리고 채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체 회중이 들을 수 있는 힘찬 목소리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이 답변에 반대가 없어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된지 불과 5년 만에 스톤은 이 신앙고백서가 성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성서로 돌아가기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1800년 통계에 의하면, 켄터키 주의 신앙인은 전체 인구 221,000명 가운데 불과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연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였으며, 종교적인 무감정에 빠져 있었다. 독립전쟁직후 개척지였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욕설, 무도회, 파티, 말 경주, 도박, 음주 등으로 대단히 문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와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켄터키 주 일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스톤 자신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비명, 경련, 입신과 같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 특히 1801년 8월에 있었던 캐인 리지 부흥회 때는 참석자가 무려 25,000여명에 이르렀고, 음식이 떨어져 기아상태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설교와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었다.

부흥회의 열이 가라앉자, 장로교회는 분열이 일기 시작했다. 지방노회와 주노회의 권위가 부흥회에 참석했던 목사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기존 장로교 신학과 다른 입장을 보인 부흥회 그룹은 그들만의 친교모임을 만들고 강하게 결속하였다. 1810년에는 콤버랜드(Cumberland) 장로교단이 형성되었고, 뉴 라이트(New Lights)도 새로운 장로회들을 조직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톤은 신앙체험의 중요성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전통적인 신조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교회 분열의 죄악성을 보았고, 개척지역의 민주적 자유를 함께 나누며, 점차 교회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는 비록 부흥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연대했다.

콘코드와 케인 리지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봉직한지 육년 만에 스톤은 성도들을 모아 놓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양심적으로 장로교회가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당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금전상의 모든 의무를 면하여 주었다. 그는 회중이 보는 앞에서 사례비 지불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찢어 버렸다. 이와 동시에 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스톤의 동료 목회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에 서명한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cNemar), 요한 톰프슨(John Thompson)이 이들 가운데 일부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맥네마르의 견해가 워싱턴 장로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였다. 그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담긴 교리에 위배되는 위험하고 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문제가 1803년 9월 7일 렉싱턴에서 열린 켄터기 주 노회에 상정되었고, 주노회는 워싱턴 장로회가 맥네마르의 문제에 엄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비난하였다. 투표에서 부흥회측은 반부흥회측의 수적 우세를 꺾지 못하고 지고 말았다. 그러자 부흥회측은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서에 서명한 마샬, 스톤, 둔라비, 맥네마르, 톰프슨은 그들의 글에서 충분하고, 최종적이며, 완결된 권위로서의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헌신과 신앙고백서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피력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있고 난 후에, 주노회는 1803년 9월 13일, 분리자들이 주노회의 사법권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 떠났으며, 교회의 교리와 규범에 환원하기를 거절하고 그들 자신의 장로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서명자들을 정직(停職)할 것을 투표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구성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에 된 일이다. 이들은 1804년 1월에 “켄터키 주 노회의 사법권을 포기한데 따른 변호”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로버트 마샬이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 1부를 썼고, 스톤이 신앙 고백서에 담긴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 2부를 썼고, 톰프슨이 인위적 신조의 권위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서를 변호하였다.

독립 기구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단지 9개월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정책이나 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장로교이면서도 기존 장로제도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기구였다. 회원 교회들은 모두가 15개의 장로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 교회 말고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교회들이나 부흥설교가들이 환영받는 비조직의 알려지지 않은 그룹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질적으로 어떠한 교권에도 순복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한 교회들도 구속(atonement)이나 다른 교리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일치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텅 비고 이름뿐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해체 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조직에서 오직 스톤만이 안정적이고 의존할만한 인물로 남게 되었다. 스톤은 이 유언서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파당적인 교회명을 버리고, 또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뿐(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이라는 정신으로 ‘그리스도인’(Christians)의 이름아래 교회의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아브너 존스와 엘리야스 스미스(Abner Jones and Elias Smith), 그리고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운동에 함께 연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리교인(Methodist), 장로교인(Presbyterian), 침례교인(Baptist)과 같은 이름은 옳지 않다고 믿었고, 침수세례가 옳다

고 믿는 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톤과 함께 유언서에 서명했던 목사들 가운데 맥 네마르와 둔라비는 셰이커(Shakerism)에 넘어갔고, 마샬과 톰프슨은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침수를 주장했던 펠비안스는 설교가이지만 본래가 정치가였다. 그는 주의원으로 활약했다.

이상으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의 번역과 이 문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임스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쓴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s Only*)이란 책에 실린 스톤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미 본 문서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토양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스톤이 주장한 교회연합의 당위성, 성서의 권위회복,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토양과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물어 보는 아픔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우리의 생존을 미국식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틀에 맡겨 버려서도 안 되겠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다른 교단의 것들을 따라 가서도 안 되겠다. 우리 식에 맞는 우리의 것들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물어 보자.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은 정신이지,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리도 조직의 틀도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소중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서만이 우리의 헌법이 되며, 사랑과 관용의 정신만이 끈끈한 접합제가 된다는 진리이다. 이제로부터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의 것이니까 안 되고, 우리 것이니까 별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버려야 한다. 남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성서에 비추어 옳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이다.

‘본질에 일치를, 비본질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과 관용을!’

참고서적

- Cochran, Louis and Cochran, Bess White. *Captives of the Word: A Narrativ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Churches(Independent), and the Church of Christ*.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Dickinson, Hoke S., ed. *The Cane Ridge Reader*. Cane Ridge, 1972. 이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다. 『발톤 스톤의 자서전』. 「교회 치리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Church Government).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서부지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 Dunnavant, Anthony L. *Cane Ridg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92.
- McAllister, Lester G.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Sain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75.
- Mills, Dean.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7.
- Murch, James DeForest.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 Stone, Barton W.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Webb, Henry E.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90.

Womack, Morris.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2.

제3장 캐인 리지 성지

1. 캐인 리지 교회 (Cane Ridge Meeting House)



캐인 리지 성지는 성도들뿐 아니라, 200년을 지탱해온 통나무 집을 보기 위해서 많은 건축학도들이 찾는 곳이다

발톤 스톤이 1796년부터 1812년까지 시무했던 캐인 리지 예배당이다. 이 건물은 1791년에 건축되었으며, 2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잘 보존되고 있다. 1922년까지 회중을 섬겼다. 싱글 룸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나무집이다.

The Old Cane Ridge Meeting House built in 1791 with massive blue ash logs. It served a congregation until 1922. It is probably the largest single-room log building in the nation. Scene of famous Cane Ridge Revival of 1801. Here, on June

28, 1804, was born the Movement known as the Christian Church.

2. 캐인 리지 예배당 보존 건물



이 건축물은 캐인 리지 예배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1954년에 짓기 시작해서 1957년 6월 28일에 완공하여 헌당된 건물이다. 이 건물 속에 옛 캐인 리지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켄터키 주 패리스 캐인 리지로(路)에 위치하고 있다.

Cane Ridge Shrine/superstructure was begun in 1954 and dedicated in June 28, 1957, It encloses The Meeting House, and is constructed of the rare tan or golden Cane Ridge stone. Cane Ridge is located at 8 miles east of Paris, Kentucky.

3. 발통 스톤 기념박물관



이 건물은 1975년에 건축된 발톤 스톤 기념박물관이다.

Barton Warren Stone Memorial Museum,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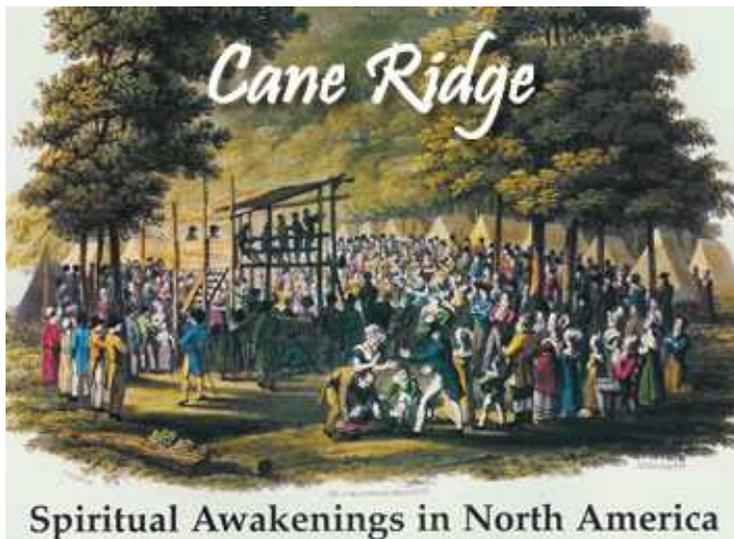
4. 캐인 리지 예배당 내부



캐인 리지 예배당 내부의 모습이다. 이층 발코니는 흑인들이 예배드리던 곳이다.

Inside view of the old Cane Ridge Meeting House. The gallery shown here was for the slaves. Its timbers were removed from this building in 1829 and brought back 103 years later, in 1932.

5. 캐인 리지의 영적 각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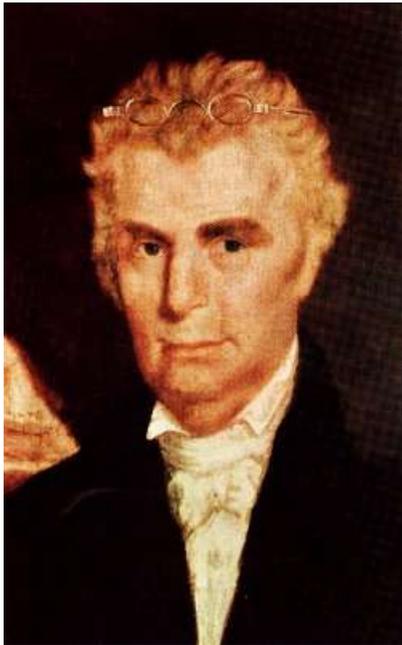
캐인 리지 부흥회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6. 캐인 리지의 발통 스톤의 기념비들

발통 W. 스톤의 출생연도: 1772년 1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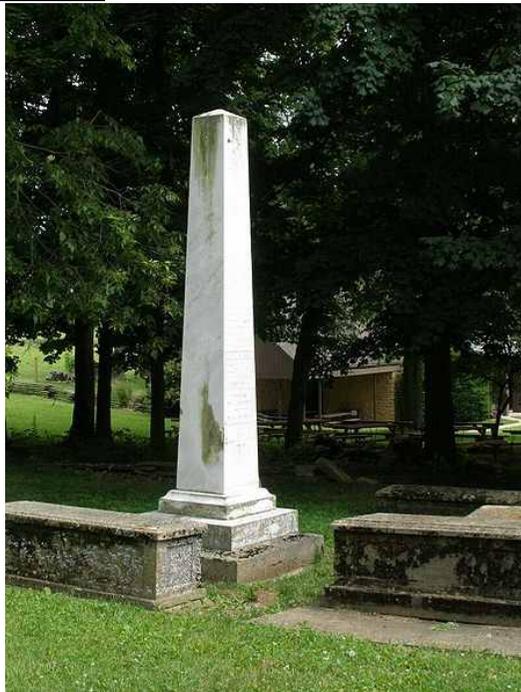
발통 W. 스톤의 사망연도: 1844년 11월 9일

발통 W. 스톤의 기념비 건립 연도: 1847년



발톤 스톤의 초상화
Portrait of Barton W. Stone

발톤 스톤의 무덤
Grave of Barton
Stone at Cane Ridge,
Kentucky





7. 발통 스톤의 캔터키 주 조지타운의 집



944 E. Main
St.
Georgetown,
Kentucky

스톤은 이곳에서 1819년부터 1834년까지 살다가 일리노이 주(Illinois) 잭슨빌 (Jacksonville)로 이사하였다.